2025. 10

국회예산정책처 I 산업동향 & 이슈 I 제78호

NABO 산업동향 & 이슈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CONTENTS

산업 동향

산업 이슈 | 석유화학산업 위기 원인 진단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산업동향 & 이슈

기 획 · 조 정	**예승우**	경제분석총괄과장
	최영일	거시경제분석과장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허가형	인구전략분석과장
	조은영	경제분석관
작 성	**권일**	산업자원분석과장
	조은영	경제분석관
	김용균	경제분석관
	이진희	경제분석관
지 원	**양희열**	행정실무원
	류호연	자료분석연구원

- 「NABO 산업동향 & 이슈」에 관한 문의 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자원분석과 (☎ 02-6788-378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BO 산업동향 & 이슈」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환경을 고려하여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Contents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2025년 10월호 통권 제78호

NABO 산업동향 & 이슈

Ⅰ 산업생산

1. 전산업 08
2. 제조업 12
3. 서비스업 23

Ⅱ 수출

1. 13대 산업 수출 30
2. 10대 주요 지역별 수출 39
3. 가공단계별 수출 40

Ⅲ 에너지·원자재

1. 에너지 42
2. 비철금속 47
3. 농산물 48

Ⅳ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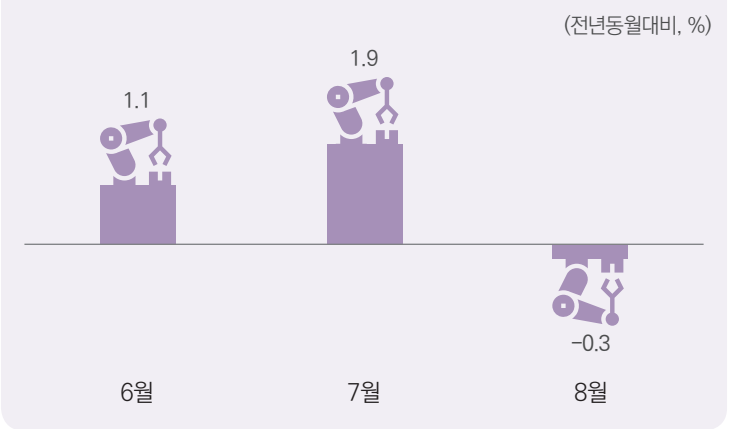
1. 배출권거래 50
2. 재활용가능자원 53

Ⅴ 산업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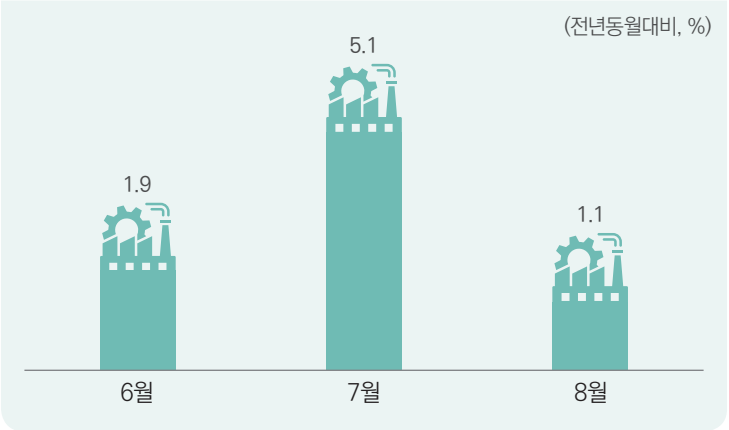
석유화학산업 위기 원인 진단과 시사점 56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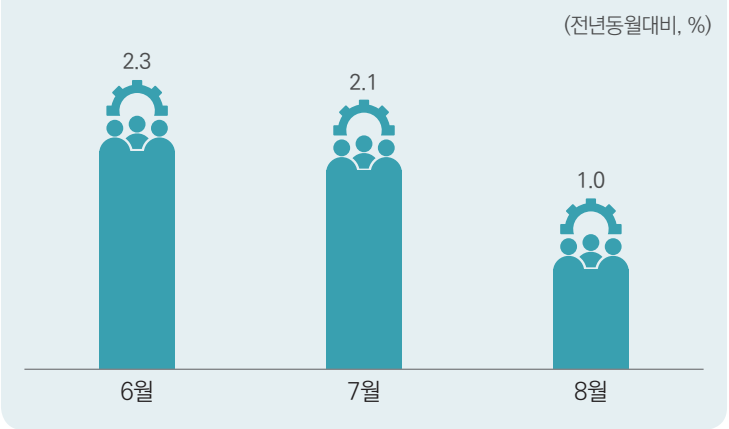
전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산업동향 & 이슈 종합

- **최근 우리 경제는 주력 산업의 양호한 수출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 지속, 건설경기 침체와 소비부진 등으로 정체**

  2025년 8월 제조업은 수출실적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건설경기가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전산업 생산의 성장세가 둔화

- **(전산업 생산) 8월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3% 감소, 전월대비 0.0%**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6월) 1.1 → (7월) 1.9 → (8월) −0.3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5.6월) 1.6 → (7월) 0.3 → (8월) 0.0

- **(제조업 생산) 8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 전월대비 2.6% 모두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6월) 1.9 → (7월) 5.1 → (8월) 1.1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5.6월) 1.8 → (7월) 0.1 → (8월) 2.6

- **(서비스업 생산)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전월대비 0.7% 감소**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6월) 2.3 → (7월) 2.1 → (8월) 1.0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5.6월) 1.0 → (7월) 0.2 → (8월) −0.7

- **(건설업 생산) 8월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7.9%, 전월대비 6.1% 모두 감소**
  - 건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6월) −12.1 → (7월) −14.0 → (8월) −17.9
  - 건설업 생산(전월대비, %): ('25.6월) 6.4 → (7월) −0.7 → (8월) −6.1

- **(수출) 9월 주요 13대 산업의 「수출」은 511.9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1.0% 증가**
  - 수출액(억달러): ('25.7월) 466.7 → (8월) 460.7 → (9월) 511.9
  - 수출(전년동월대비, %): ('25.7월) 5.5 → (8월) 1.8 → (9월) 11.0

- **(에너지 및 원자재) 9월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비철금속은 상승**
  - 에너지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5.7월) −13.5 → (8월) −14.2 → (9월) −8.1
  - 비철금속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5.7월) 3.2 → (8월) 6.3 → (9월) 7.4
  - 농산물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5.7월) −1.6 → (8월) 0.5 → (9월) −1.9

- **(환경) 8월 배출권(KAU24) 종가는 전월대비 상승, 거래량은 전월대비 증가**
  - KAU24 종가(원/톤): ('25.6월) 8,700 → (7월) 8,420 → (8월) 9,490
  - KAU24 장내거래량(천톤): ('25.6월) 3,377 → (7월) 4,555 → (8월) 6,670

주요 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원/달러, %)

	2023	2024				2025				
	연간	연간	2Q	3Q	4Q	1Q	2Q	7월	8월	9월
전산업생산	1.1	1.5	2.2	0.5	0.6	-0.5	0.3	1.9	-0.3	-
제조업생산	-2.6	4.2	5.3	2.2	3.7	2.0	2.3	5.1	1.1	-
서비스업생산	3.4	1.1	1.6	0.2	0.6	0.4	1.4	2.1	1.0	-
소매판매액	-1.3	-2.1	-3.1 (-0.3)	-1.5 (0.7)	-2.0 (-0.4)	-0.3 (0.4)	-0.2 (-1.0)	2.5 (2.7)	-0.5 (-2.4)	-
설비투자지수	-4.8	2.9	-3.3 (-1.4)	11.5 (10.2)	5.3 (-1.8)	5.7 (-1.7)	5.6 (0.3)	-5.7 (7.6)	-0.4 (-1.1)	-
건설기성액	7.8	-4.7	-3.1 (-8.2)	-9.1 (-3.8)	-9.7 (-5.1)	-21.2 (-6.4)	-17.5 (-3.3)	-14.0 (-0.7)	-17.9 (-6.1)	-
수출(통관)	-7.5	8.1	10.1	10.5	4.2	-2.3	2.1	5.7	1.2	12.7
13대 산업	-9.1	10.4	13.2	13.1	4.4	-3.2	0.9	5.5	1.8	11.0
수입(통관)	-12.1	-1.7	-1.4	6.2	0.9	-1.4	-1.7	0.6	-4.2	8.2
경상수지(억달러)	328.2	990.4	236.8	270.7	318.2	192.6	301.1	107.8	91.5	-
소비자물가	3.6	2.3	2.7	2.1	1.6	2.1	2.1	2.1	1.7	2.1
취업자수 증감(천명)	327	159	146	146	52	155	207	171	166	312
실업률	2.7	2.8	2.9	2.2	2.8	3.4	2.8	2.4	2.0	2.1
원/달러환율	1,306	1,364	1,377	1,308	1,473	1,473	1,350	1,387	1,390	1,403
국고채금리(3년)	3.57	3.11	3.31	3.38	2.79	2.59	2.39	2.47	2.43	2.46

주: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금리는 기간 평균
3. 원/달러 환율의 연간은 연평균, 분기(월) 는 분기(월) 말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I 산업생산

1 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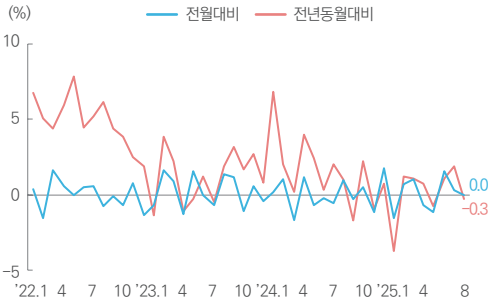
■ 2025년 8월 중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불변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3%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0.0%

- 전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6월) 1.1 → (7월) 1.9 → (8월) -0.3
-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 ('25.6월) 1.6 → (7월) 0.3 → (8월)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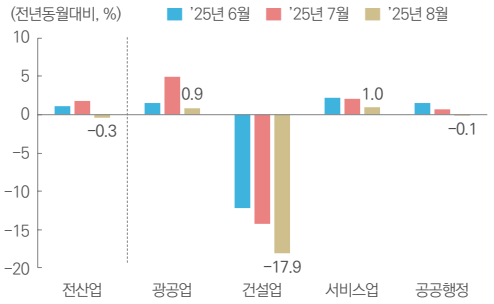
산업 부문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서비스업(1.0%), 광공업(0.9%)의 생산은 증가하였으나 건설업(-17.9%), 공공행정(-0.1%)은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광공업(2.4%)은 증가하였으나 건설업(-6.1%), 공공행정(-1.1%), 서비스업(-0.7%)의 생산은 감소

| 그림 1 |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그림 2 | 부문별 생산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 2025년 8월 중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전년동월대비: 무선통신기기(-16.2%), 가전(-10.0%), 철강(-4.7%), 섬유(-2.7%), 화학(-2.1%), 석유(-0.9%) 등은 줄었으나, 컴퓨터·주변장치(35.1%), 반도체(12.3%), 조선(8.0%), 자동차(5.2%) 등의 생산이 늘어 1.1% 증가

- 제조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6월) 1.9 → (7월) 5.1 → (8월) 1.1

전월대비: 조선(-9.7%), 가전(-5.5%), 무선통신기기(-5.2%), 석유(-3.3%), 반도체(-3.1%), 섬유(-0.7%), 철강(-0.6%), 일반기계(-0.1%) 등의 생산은 줄었으나, 자동차(21.2%), 컴퓨터·주변장치(8.5%), 화학(0.2%) 등의 생산이 늘며 2.6% 증가

• 제조업 생산(전월대비, %): ('25.6월) 1.8 → (7월) 0.1 → (8월)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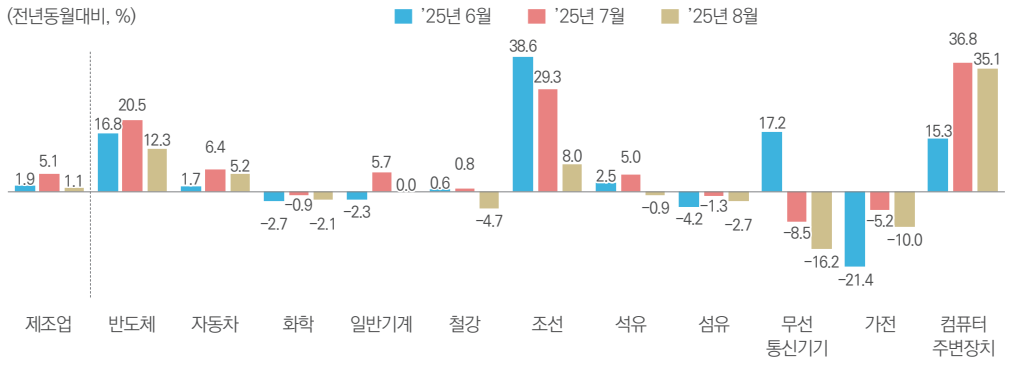
| 표 1 |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13.3	109.2	109.9	115.4	114.8	111.1	2.6
제조업	3.3	5.1	3.6	1.9	5.1	1.1	
반도체	26.3	21.4	11.0	16.8	20.5	12.3	-3.1
자동차	-4.2	-10.6	0.3	1.7	6.4	5.2	21.2
화학	1.8	4.9	3.0	-2.7	-0.9	-2.1	0.2
일반기계	-6.4	3.4	-1.2	-2.3	5.7	0.0	-0.1
철강	-8.7	-5.8	-1.2	0.6	0.8	-4.7	-0.6
조선	6.7	28.5	25.8	38.6	29.3	8.0	-9.7
석유	6.0	4.3	15.8	2.5	5.0	-0.9	-3.3
섬유	-2.3	-0.8	-4.9	-4.2	-1.3	-2.7	-0.7
무선 통신기기	8.6	61.0	29.9	17.2	-8.5	-16.2	-5.2
가전	8.6	10.8	-2.2	-21.4	-5.2	-10.0	-5.5
컴퓨터 주변장치	-12.5	-7.6	-16.7	15.3	36.8	35.1	8.5

주: *표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그림 3 | 제조업 생산 동향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2025년 8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전년동월대비: 부동산업(-3.3%), 숙박 및 음식점업(-0.2%) 등은 감소하였으나,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3.6%), 정보통신업(3.1%), 도소매업(2.0%), 금융·보험업(1.8%), 운수창고업(1.8%),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0.5%) 등이 늘어 1.0% 증가

• 서비스업 생산(전년동월대비, %): ('25.6월) 2.3 → (7월) 2.1 → (8월) 1.0

전월대비: 숙박·음식점업(1.1%), 운수창고업(0.5%),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0.3%) 등은 늘었으나, 부동산업(-1.8%), 도소매업(-1.7%), 정보통신업(-1.4%),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4%), 금융·보험업(-0.6%) 등이 줄며 0.7% 감소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 ('25.6월) 1.0 → (7월) 0.2 → (8월)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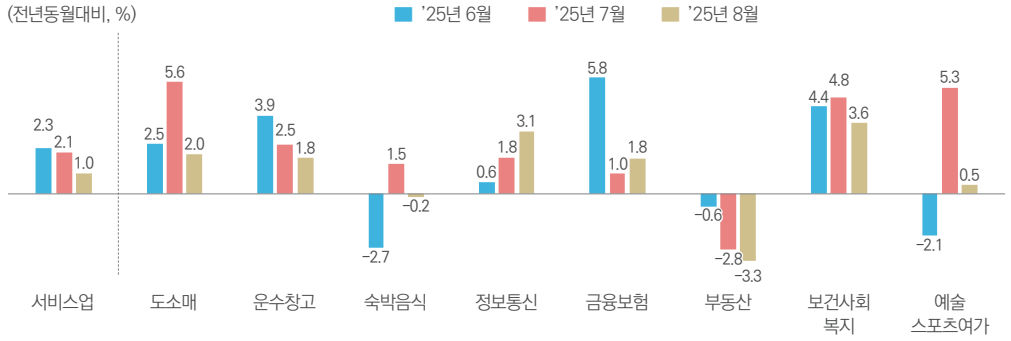
| 표 2 |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19.0	116.5	115.3	121.7	118.9	116.5	-0.7
서비스업	0.1	1.2	0.5	2.3	2.1	1.0	
도매 및 소매업	-4.8	-1.8	-1.9	2.5	5.6	2.0	-1.7
운수 및 창고업	7.1	6.0	6	3.9	2.5	1.8	0.5
숙박 및 음식점업	-0.8	-3.3	-0.2	-2.7	1.5	-0.2	1.1
정보통신업	4.4	5.5	1.5	0.6	1.8	3.1	-1.4
금융 및 보험업	2.5	1.8	-0.2	5.8	1.0	1.8	-0.6
부동산업	-2.2	-2.4	-3.1	-0.6	-2.8	-3.3	-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	1.7	2.7	4.4	4.8	3.6	0.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1	-1.3	3.1	-2.1	5.3	0.5	-1.4

주: *표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 | 서비스업 생산 동향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2025년 8월 중 「건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감소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생산은 16개월 연속 감소(-17.9%)하였고, 부문별로는 건축(-19.6%)과 토목(-12.8%)이 모두 감소

- 건설업(전년동월대비, %): ('25.6월) -12.1 → (7월) -14.0 → (8월) -17.9
- 건축(전년동월대비, %): ('25.6월) -10.4 → (7월) -15.9 → (8월) -19.6
- 토목(전년동월대비, %): ('25.6월) -16.4 → (7월) -7.2 → (8월) -12.8

전월대비: 건설업 생산은 감소(-6.1%)하였고, 부분별로는 건축(-6.8%)과 토목(-4.0%)이 모두 감소

- 건설업(전월대비, %): ('25.6월) 6.4 → (7월) -0.7 → (8월) -6.1
- 건축(전월대비, %): ('25.6월) 9.6 → (7월) -4.1 → (8월) -6.8
- 토목(전월대비, %): ('25.6월) -2.0 → (7월) 9.3 → (8월)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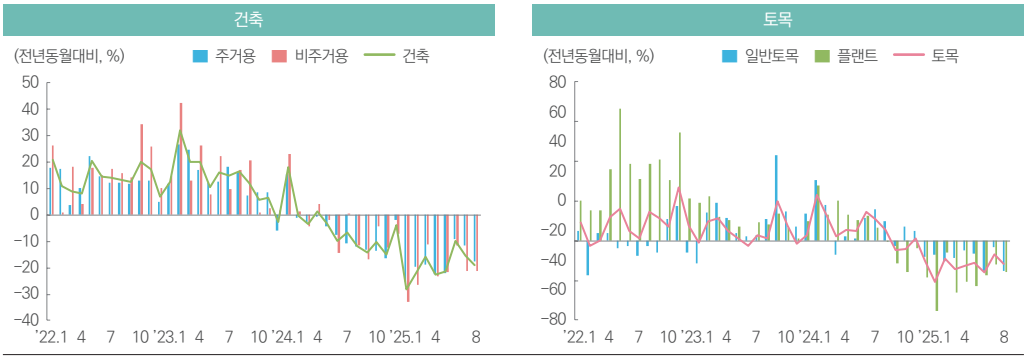
| 표 3 | 건설업 생산 동향

(단위: 2020=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건설업(생산액)	12.6	10.6	10.4	11.0	9.1	8.5	-6.1
건설업	-6.0	-5.0	-9.3	-12.1	-14.0	-17.9	
건축	-11.7	-8.2	-12.9	-10.4	-15.9	-19.6	-6.8
토목	11.6	8.6	4.1	-16.4	-7.2	-12.8	-4.0

주: *표는 잠정치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 그림 5 | 공정별 건설업 기성액(경상) 추이



주: 건축은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구성되고, 토목은 일반토목, 플랜트, 전기기계, 조경공사로 구성되나, 전기기계, 조경공사는 토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이를 제외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건설경기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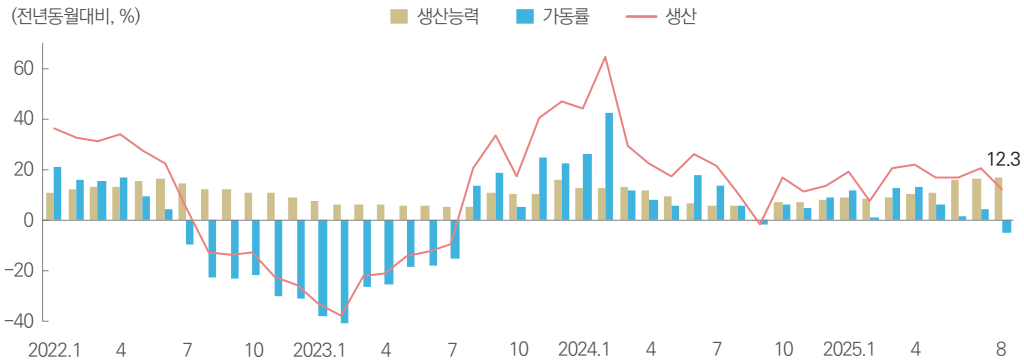
2 제조업

■ 반도체: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은 증가, 「재고」는 감소

8월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2.3%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6.8 → (7월) 20.5 → (8월) 12.3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7 → (7월) 4.4 → (8월) -4.9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5.8 → (7월) 16.6 → (8월) 16.8

| 그림 6 | 반도체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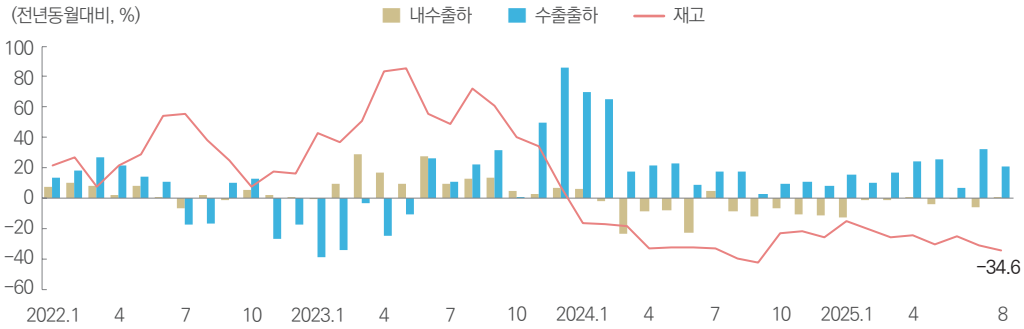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8월 반도체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34.6%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25.5 → (7월) -31.6 → (8월) -34.6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0.8 → (7월) -5.8 → (8월) 0.6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6.7 → (7월) 32.1 → (8월) 20.6

| 그림 7 | 반도체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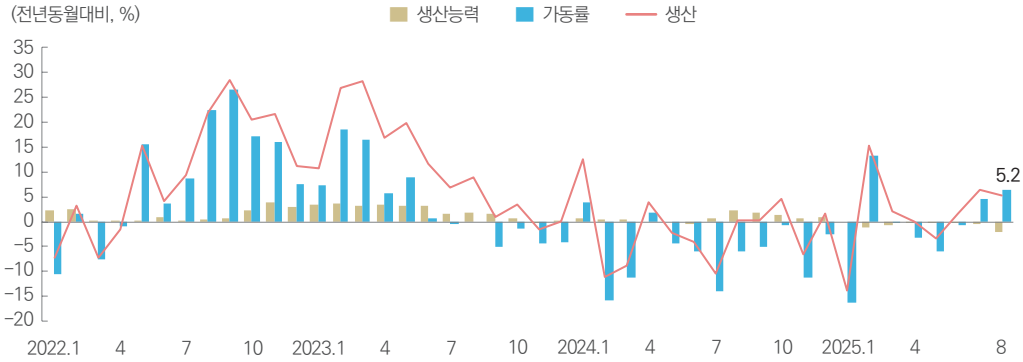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자동차: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과 「재고」는 증가

8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5.2%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7 → (7월) 6.4 → (8월) 5.2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0.7 → (7월) 4.6 → (8월) 6.4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0.3 → (7월) -0.5 → (8월) -2.1

| 그림 8 | 자동차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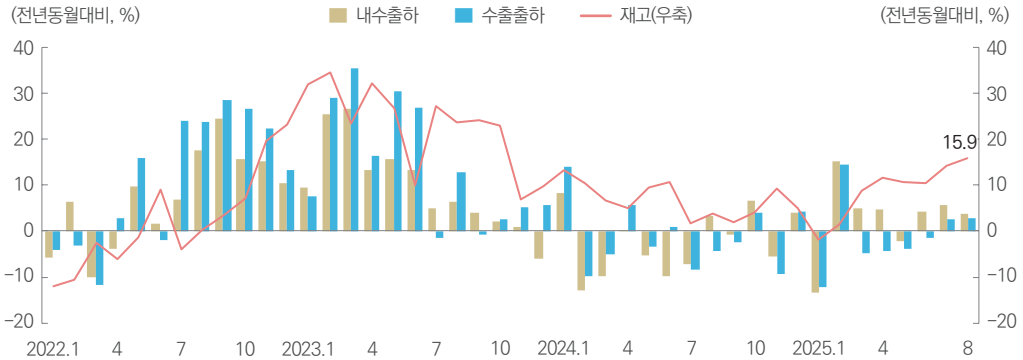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8월 자동차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5.9%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0.4 → (7월) 14.2 → (8월) 15.9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4.3 → (7월) 5.6 → (8월) 3.8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3 → (7월) 2.6 → (8월) 2.9

| 그림 9 | 자동차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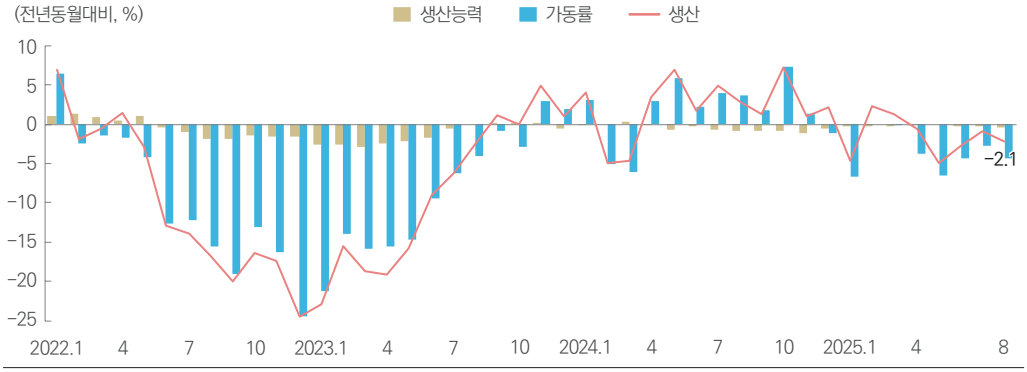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화학: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8월 화학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1%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2.7 → (7월) -0.9 → (8월) -2.1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4.3 → (7월) -2.7 → (8월) -4.3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0.2 → (7월) -0.3 → (8월) -0.4

| 그림 10 | 화학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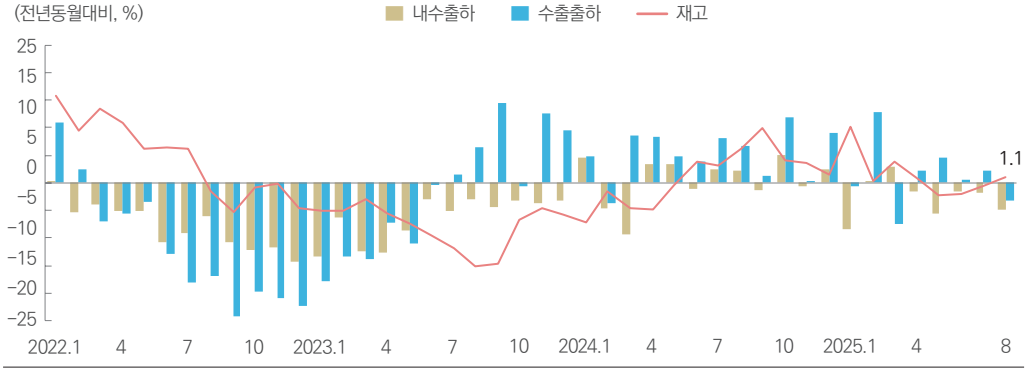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8월 화학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9 → (7월) -0.6 → (8월) 1.1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6 → (7월) -1.8 → (8월) -4.9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0.6 → (7월) 2.1 → (8월) -3.2

| 그림 11 | 화학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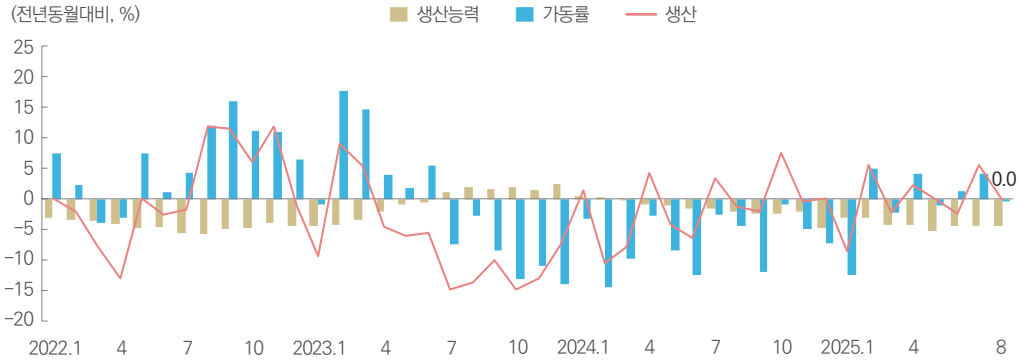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일반기계: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은 유지, 「재고」 증가

8월 일반기계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같은 수준 유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2.3 → (7월) 5.7 → (8월) 0.0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4 → (7월) 4.2 → (8월) -0.4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4.4 → (7월) -4.3 → (8월) -4.3

| 그림 12 | 일반기계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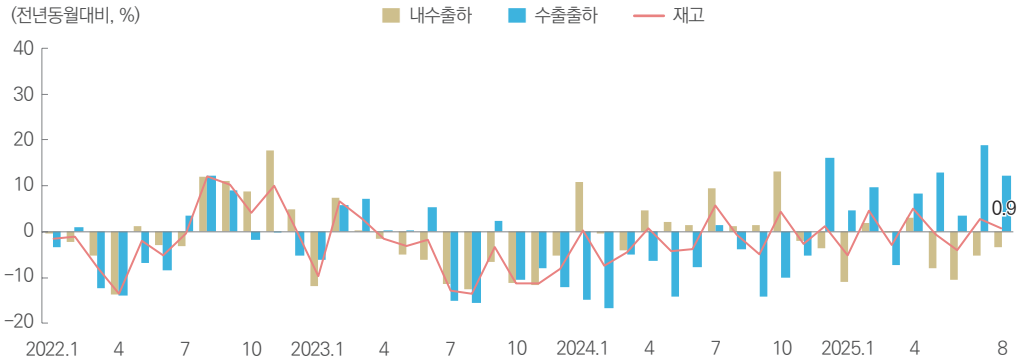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8월 일반기계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4.0 → (7월) 2.8 → (8월) 0.9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0.5 → (7월) -5.2 → (8월) -3.5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3.5 → (7월) 18.7 → (8월) 12.1

| 그림 13 | 일반기계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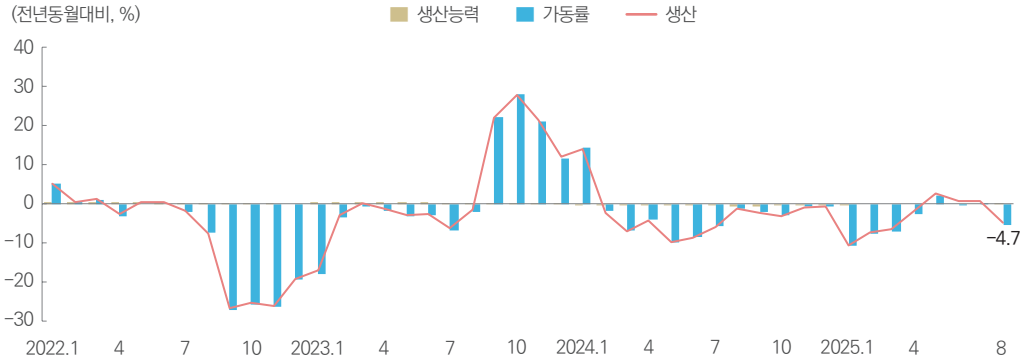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철강: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과 「재고」는 감소

8월 철강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7%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0.6 → (7월) 0.8 → (8월) -4.7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0.2 → (7월) 0.2 → (8월) -5.3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0.0 → (7월) 0.0 → (8월) 0.2

| 그림 14 | 철강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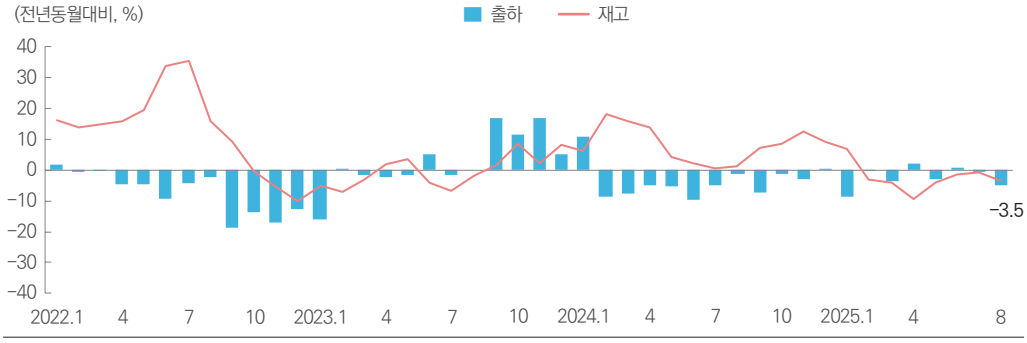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8월 철강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3.5%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6 → (7월) -1.0 → (8월) -3.5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0.9 → (7월) -0.5 → (8월) -5.0

| 그림 15 | 철강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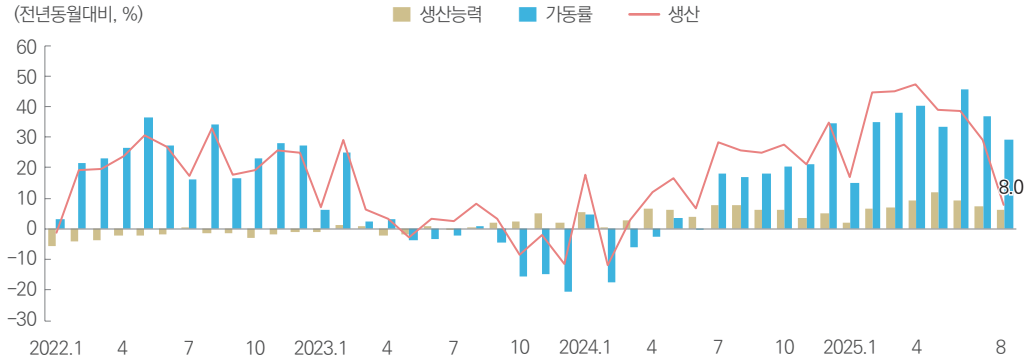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조선: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은 증가, 「출하」는 감소

8월 조선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8.0%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38.6 → (7월) 29.3 → (8월) 8.0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45.4 → (7월) 36.6 → (8월) 29.3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9.5 → (7월) 7.5 → (8월) 6.4

| 그림 16 | 조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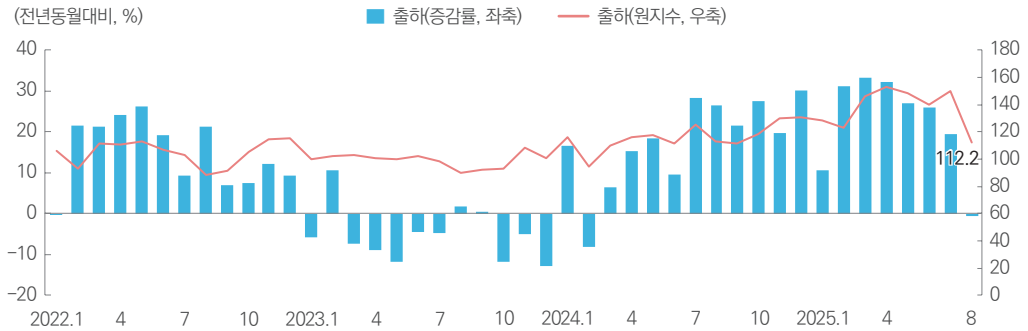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8월 조선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26.0 → (7월) 19.3 → (8월) -0.5
- 출하(2020년=100): ('25.6월) 140.5 → (7월) 150.0 → (8월) 112.2

| 그림 17 | 조선 산업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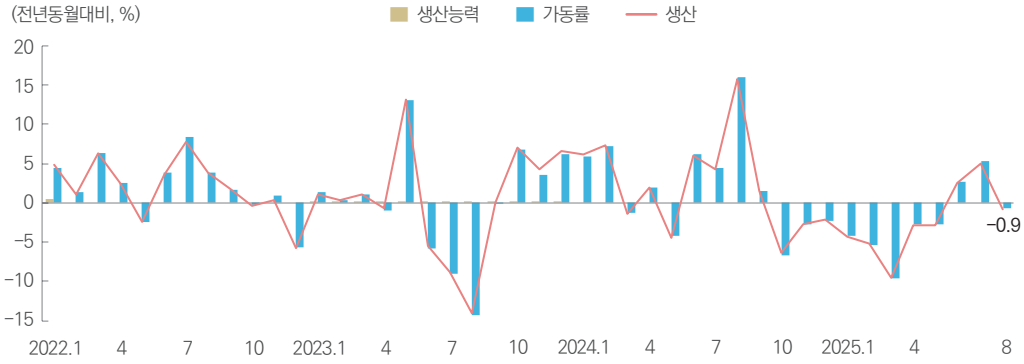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석유: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과 「재고」는 감소

8월 석유 산업 생산은 가동률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0.9%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2.5 → (7월) 5.0 → (8월) -0.9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2.7 → (7월) 5.2 → (8월) -0.7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0.0 → (7월) 0.0 → (8월) 0.0

| 그림 18 | 석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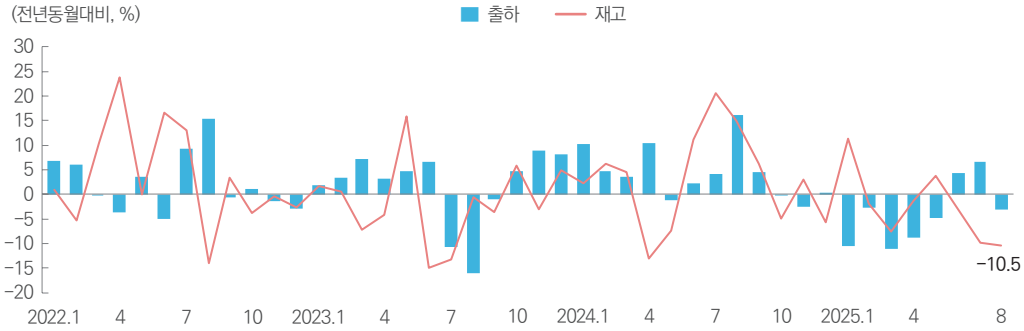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8월 석유 산업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10.5%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3.1 → (7월) -10.0 → (8월) -10.5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4.3 → (7월) 6.6 → (8월) -3.0

| 그림 19 | 석유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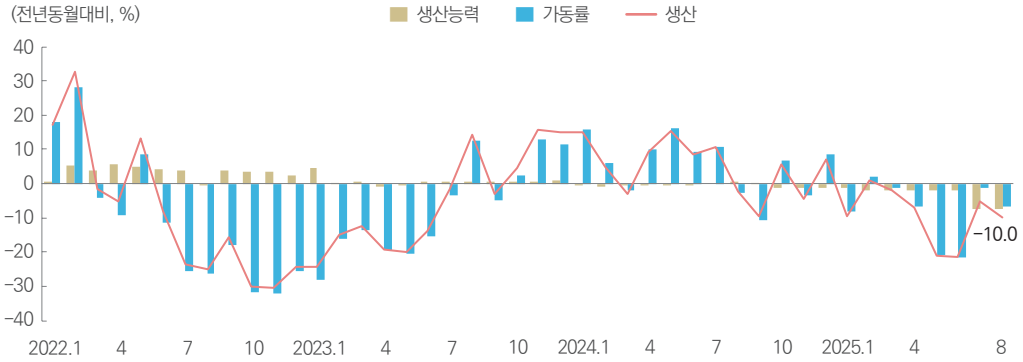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가전: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과 「재고」 감소

8월 가전 생산은 가동률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0.0%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21.4 → (7월) -5.2 → (8월) -10.0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21.6 → (7월) -1.2 → (8월) -6.8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9 → (7월) -7.5 → (8월) -7.3

| 그림 20 | 가전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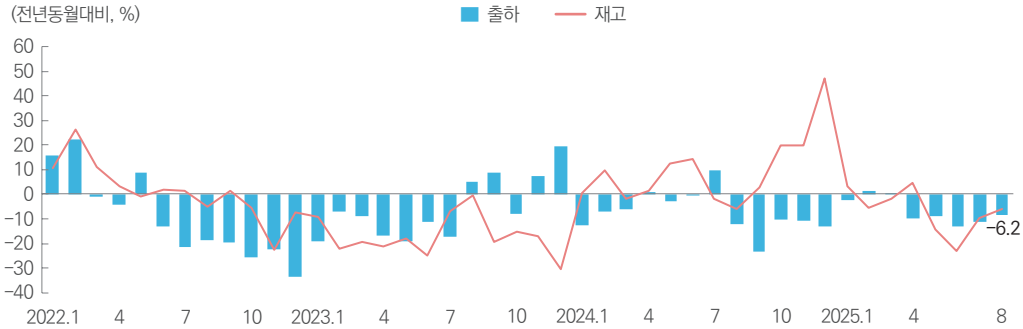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8월 가전 재고는 출하 감소에도 생산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6.2%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23.4 → (7월) -9.9 → (8월) -6.2
- 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2.8 → (7월) -11.2 → (8월) -8.5

| 그림 21 | 가전 산업 재고 및 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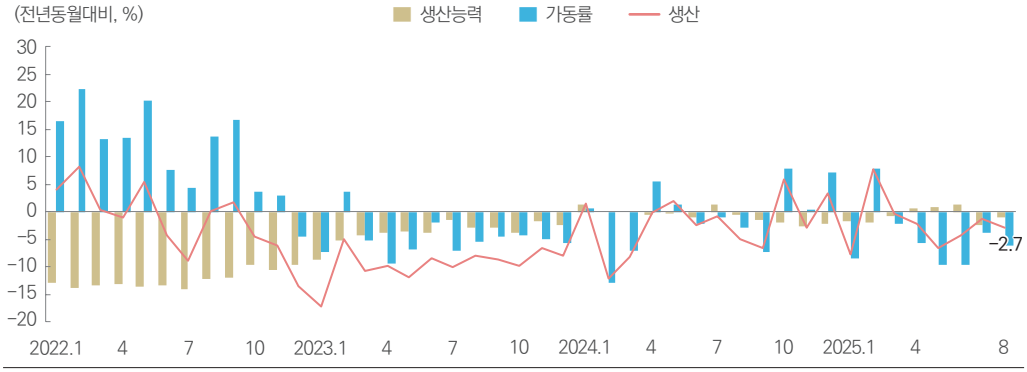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섬유: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은 감소, 「재고」는 증가

8월 섬유 생산은 가동률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7%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4.2 → (7월) -1.3 → (8월) -2.7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9.5 → (7월) -3.8 → (8월) -6.1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3 → (7월) -2.3 → (8월) -0.9

| 그림 22 | 섬유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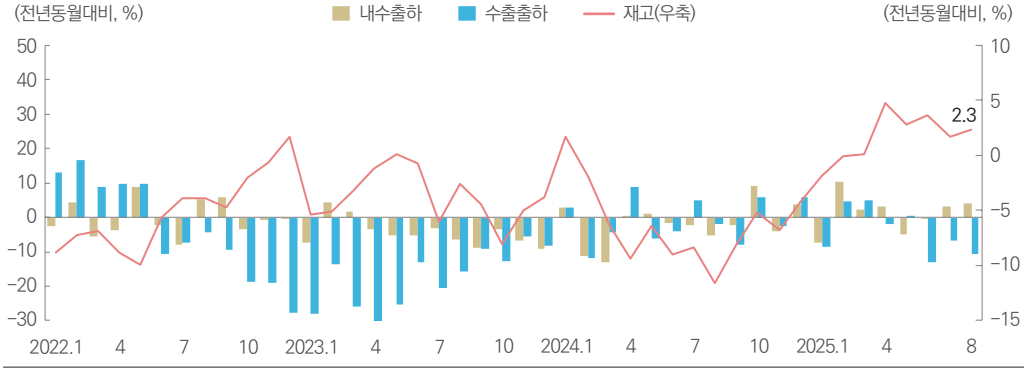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8월 섬유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3.6 → (7월) 1.7 → (8월) 2.3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0.2 → (7월) 3.2 → (8월) 3.9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3.1 → (7월) -6.7 → (8월) -10.6

| 그림 23 | 섬유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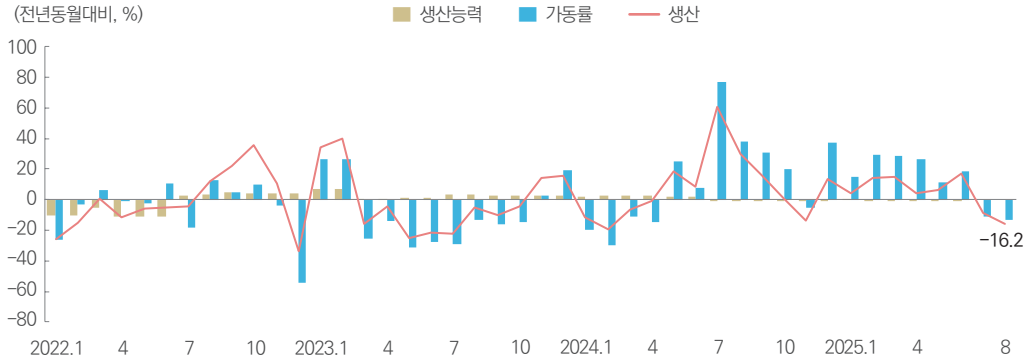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무선통신기기: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과 「재고」는 감소

8월 무선통신기기 생산은 가동률 상승으로 전년동월대비 16.2% 감소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7.2 → (7월) -8.5 → (8월) -16.2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8.8 → (7월) -11.3 → (8월) -13.1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0.3 → (7월) 0.0 → (8월) 0.0

| 그림 24 | 무선통신기기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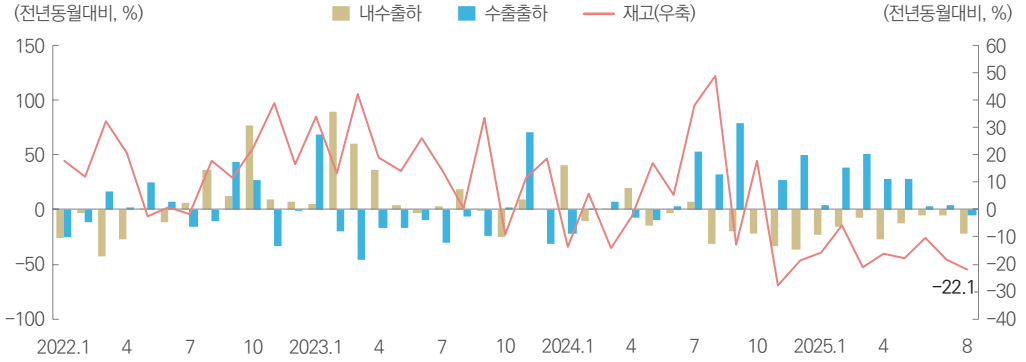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8월 무선통신기기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22.1%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0.4 → (7월) -18.2 → (8월) -22.1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5.0 → (7월) -5.7 → (8월) -22.4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3.0 → (7월) 4.1 → (8월) -5.2

| 그림 25 | 무선통신기기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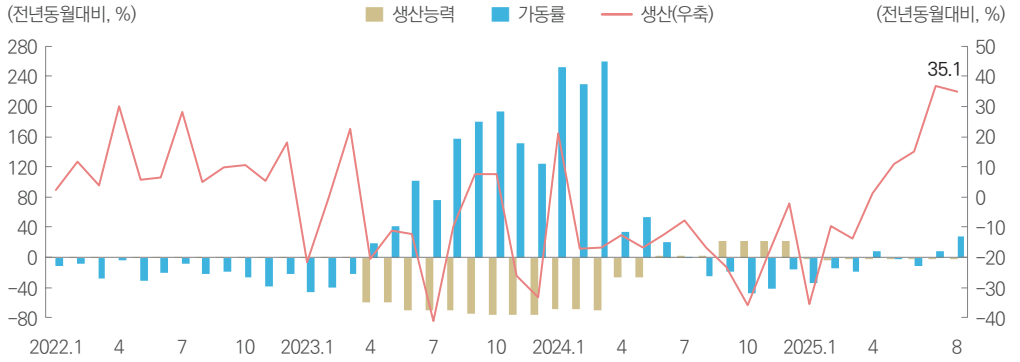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컴퓨터·주변장치: 전년동월대비 8월 「생산」은 증가, 「재고」는 감소

8월 컴퓨터·주변장치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5.1% 증가

- 생산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5.3 → (7월) 36.8 → (8월) 35.1
- 가동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2.0 → (7월) 9.0 → (8월) 28.2
- 생산능력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0.7 → (7월) -1.0 → (8월) -1.0

| 그림 26 | 컴퓨터·주변장치 산업 생산 및 가동률·생산능력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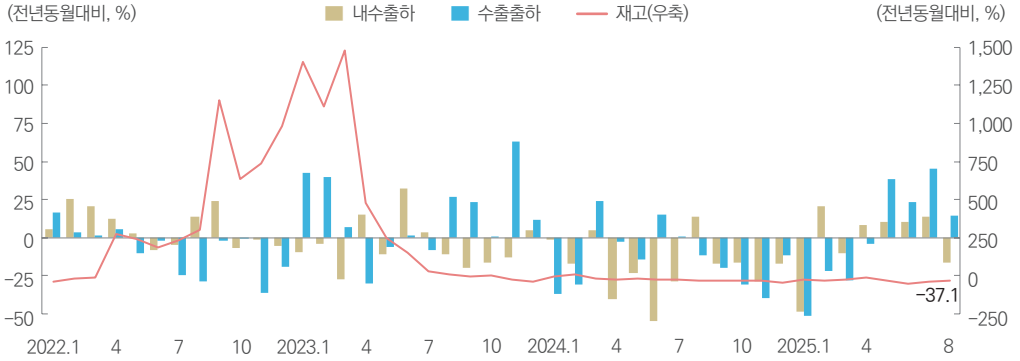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8월 컴퓨터·주변장치 재고는 전년동월대비 37.1% 감소

- 재고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51.6 → (7월) -39.0 → (8월) -37.1
- 내수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0.2 → (7월) 13.6 → (8월) -16.2
- 수출출하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23.2 → (7월) 45.2 → (8월) 14.8

| 그림 27 | 컴퓨터·주변장치 산업 재고 및 내수·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주: 코로나 시기 재고 소진과 코로나 이후 급격한 재고 증가로 2022년 하반기부터 재고 증감률이 급증함
자료: 국가데이터처, 「광업제조업동향조사」

3 서비스업

■ 도매 및 소매업: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6.9%)과 도매업(3.0%)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의 경우 수출 증가에 따른 국산차 판매 및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가 증가하였고, 도매업의 경우 노트북 등 신제품 출시, 컴퓨터·로봇·반도체 부품 등의 판매 및 수주가 늘어난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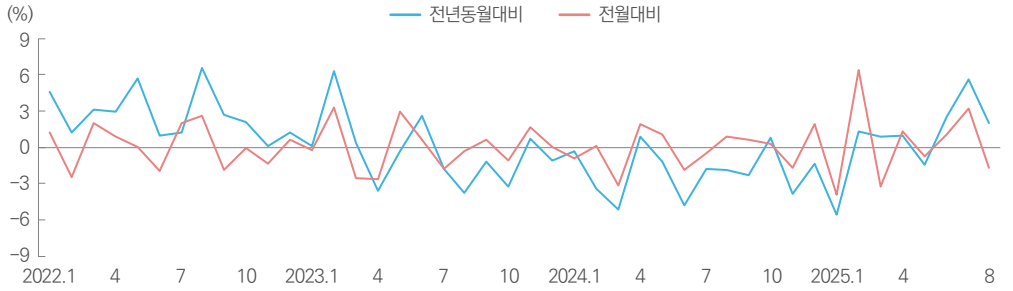
전월대비로는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27.4%), 건축자재 도매업(-10.7%),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8.7%)을 중심으로 1.7% 감소하였는데, 전월 핸드폰 신제품 출시에 의한 기저효과, 건설업의 부진, 8월 초중고 방학에 따른 음식료품 납품 감소 등에 기인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2.5 → (7월) 5.6 → (8월) 2.0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6월) 1.1 → (7월) 3.2 → (8월) -1.7

재별·상품별 소매판매액지수는 비내구재(-3.5%)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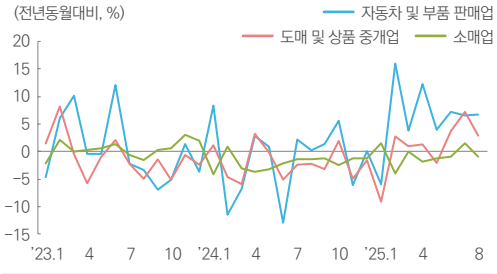
- 품목별로 살펴보면, 가전제품(-11.0%), 음식료품(-6.1%), 화장품(-5.6%), 가구(-4.5%)의 감소폭이 큼

| 그림 28 | 도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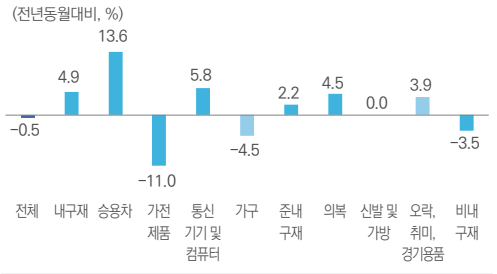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29 | 도소매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0 | 재별·상품별 소매판매액지수



자료: 국가데이터처

■ 운수 및 창고업: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증가

운수 및 창고업 생산은 수상운송업(12.8%)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 수송운송업의 부가가치가 증가한 것은 세계 경기둔화와 글로벌 컨테이너선 공급 증가로 인한 해운 운임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해상 물동량 증가와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디플레이터의 하락에 기인

※ 해상운임 단가는 SCFI의 경우 6월 6일 2,240.35에서 9월 26일 1,114.52로, CCFI의 경우 6월 27일 1,369.34에서 9월 26일 1087.41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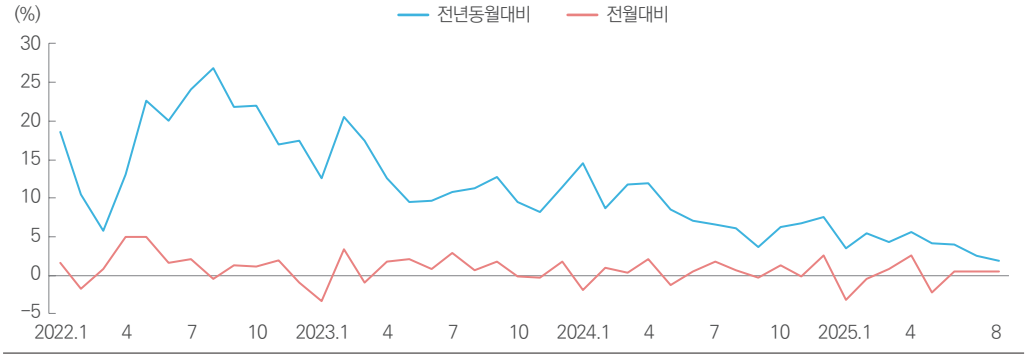
※ 8월 해상 물동량 1억 3,296만톤 중 입항이 7,590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0.49% 증가

전월대비로는 0.5% 증가에 그쳤는데, 육상운송업(-1.1%)이 감소한 반면, 국제 항공 이용객수를 중심으로 항공운송업이 4.6%, 수상운송업이 3.7% 증가한 데 기인

※ 국제 항공 이용객수는 2025년 8월 849만명으로, 전월대비 6.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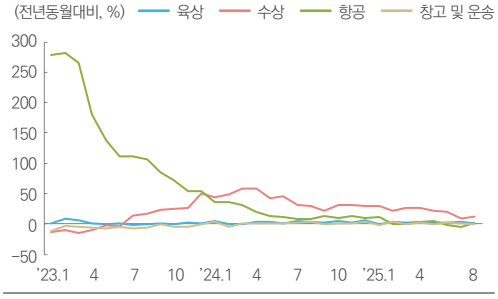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3.9 → (7월) 2.5 → (8월) 1.8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6월) 0.5 → (7월) 0.5 → (8월) 0.5

| 그림 31 | 운수 및 창고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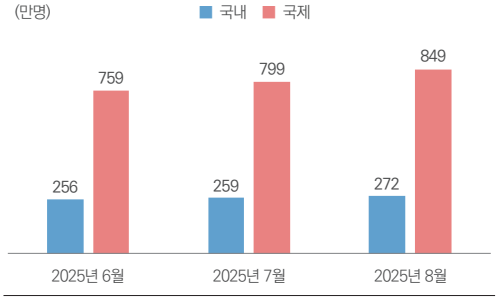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2 | 운수 및 창고업 업종별 생산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3 | 항공 이용객수 추이



자료: 항공정보포털시스템

■ 숙박 및 음식업: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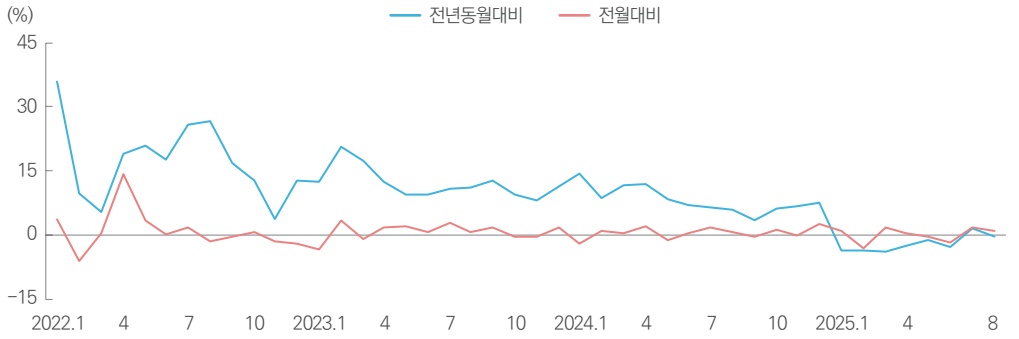
숙박 및 음식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하였는데, 이는 음식점업(2.0%)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숙박업(-6.1%)과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3.8%)의 감소폭 확대에 기인

- 숙박업의 생산 감소는 호텔업보다 여관업과 휴양콘도 운영업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된 데 기인
  ※ 호텔업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한 반면 여관업과 휴양콘도 운영업은 각각 7.3%, 9.4% 감소

전월대비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음식점업(1.3%)을 중심으로 1.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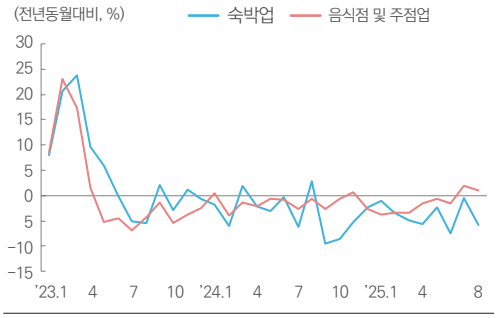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2.7 → (7월) 1.5 → (8월) -0.2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6월) -1.7 → (7월) 1.9 → (8월) 1.1

| 그림 34 | 숙박 및 음식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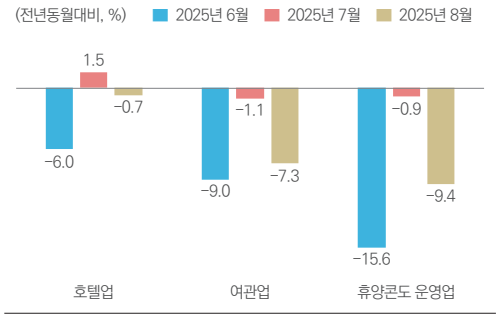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5 | 숙박음식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6 | 숙소유형별 부가가치 증가율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금융 및 보험업: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금융업 중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19.3%),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16.0%), 보험업(8.7%)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 신탁업 및 집합 투자업의 경우 주가상승 등으로 자본시장 자금유입이 증가하였고 보험업의 경우 보험손익 악화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에 기인[1)]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의 경우 펀드수탁고가 8월 말 1,236조원, 투자일임계약고가 639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18.2%, 5.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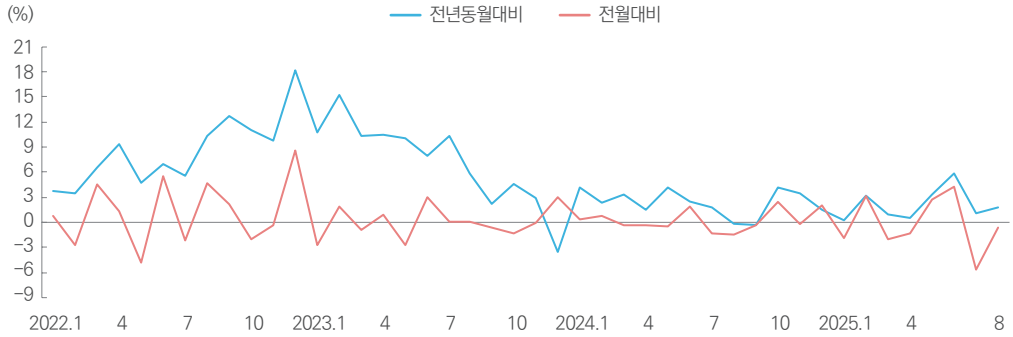
※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은 7조 9,75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0% 줄어들었으며, 이 중 보험손익은 6조 4,08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9% 감소[2)]

전월대비로 금융지원서비스업(-13.1%), 연금 및 공제업(-4.1%), 보험업(-0.6%)을 중심으로 0.6% 감소하였는데, 금융지원서비스업의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대금이 8월 기준 309조원으로 전월대비 28.9% 감소한 데 기인

※ 주식거래대금(조원): ('25.6월) 425 → (7월) 434 → (8월) 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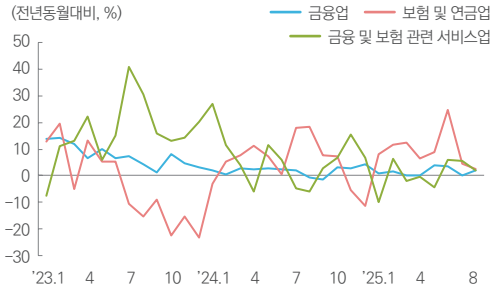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5.8 → (7월) 1.0 → (8월) 1.8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6월) 4.2 → (7월) -5.7 → (8월) -0.6

| 그림 37 |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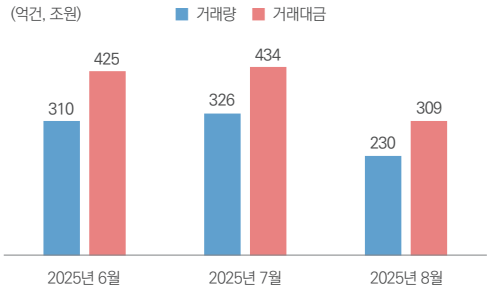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8 | 금융보험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39 | 주식거래량 및 거래대금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1) 금융투자협회, 〈https: //freesis.kofia.or.kr, 접속: 2025.10.11.〉
2)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 2025.8.27.

■ 정보통신업: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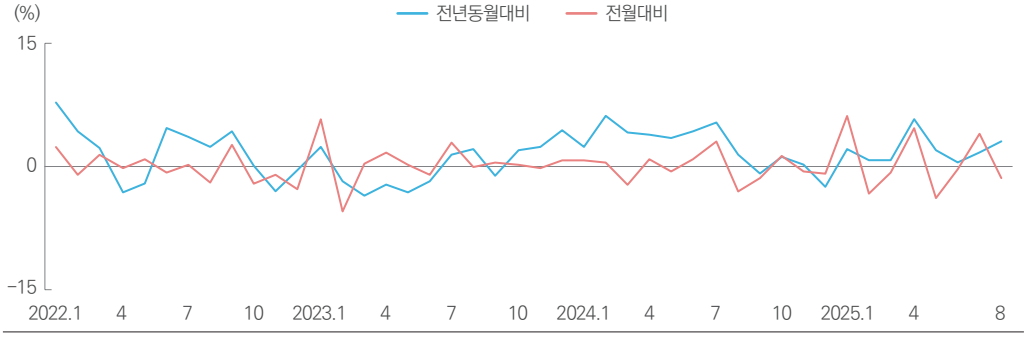
정보통신업 생산은 정보서비스업(14.8%), 전기통신업(8.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2.7%)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

- 가상자산거래액, AI 기반 맞춤형 광고수익, 영화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관람객의 증가[3] 등에 기인
  ※ 비트코인 평균 시가는 8월 기준 115,070 USD/BTC로 전년동기대비 91.5% 증가
  ※ 영화관람 매출액은 2025년 8월 1,35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

전월대비로 살펴보면, 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7%), 공영우편업(-6.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4.3%)을 중심으로 생산이 1.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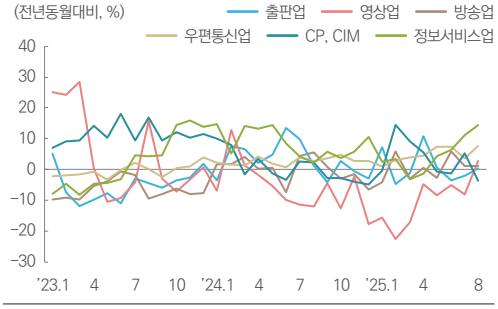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0.6 → (7월) 1.8 → (8월) 3.1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6월) -0.3 → (7월) 4.1 → (8월) -1.4

| 그림 40 | 정보통신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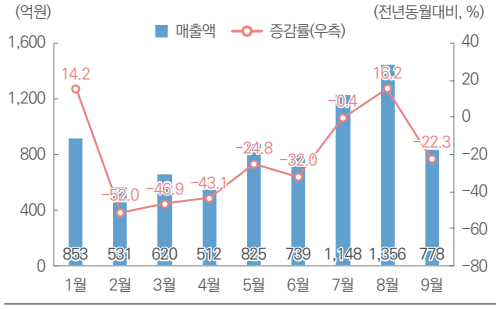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1 | 정보통신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2 | 영화관람 매출액 추이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3) 8월 사용된 할인권은 143만 장이며, 2025년 8월 전체 관객 수는 1,34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2%(167만 명) 증가(김성희, 「2025년 8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 2025.9.)

■ 부동산업: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감소

부동산업 생산은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17.0%),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3.8%) 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3.3% 감소

- 건설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주택거래량이 감소한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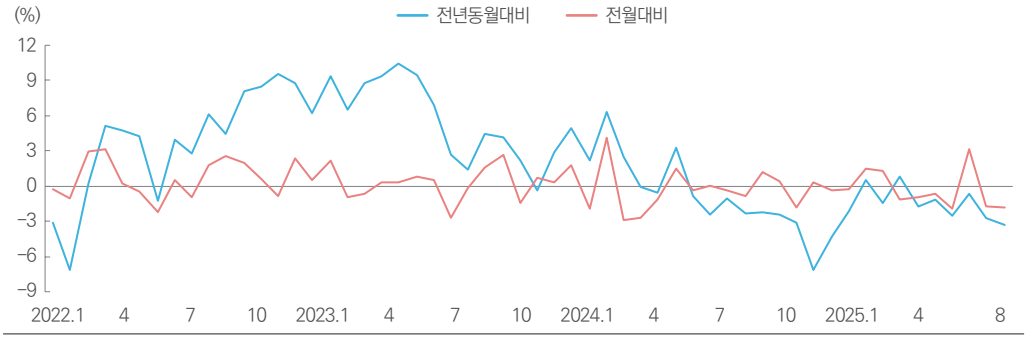
  ※ 주택전월세거래량과 주택매매거래량은 8월 기준 각각 3.1만호, 4.6만호로 전년동월대비 16.8%, 23.7% 감소

  ※ 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6월 4.3만호(전년동월대비 49.7%)에서 8월 2.2만호(-33.9%)로, 지방의 경우 6월 3.1만호(14.1%)에서 8월 2.5만호(-11.8%)로 감소

전월대비로는 1.8% 감소하였는데,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2.7%)등이 부진해진 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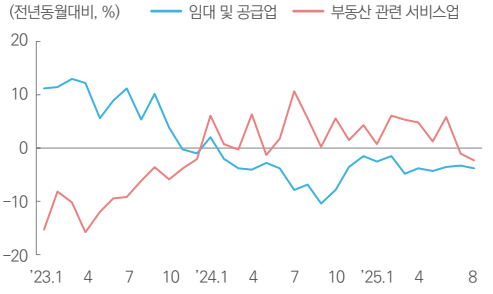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0.6 → (7월) -2.8 → (8월) -3.3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6월) 3.2 → (7월) -1.7 → (8월) -1.8

| 그림 43 | 부동산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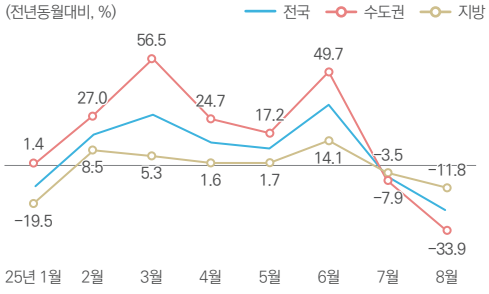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4 | 부동산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5 | 주택매매거래 증감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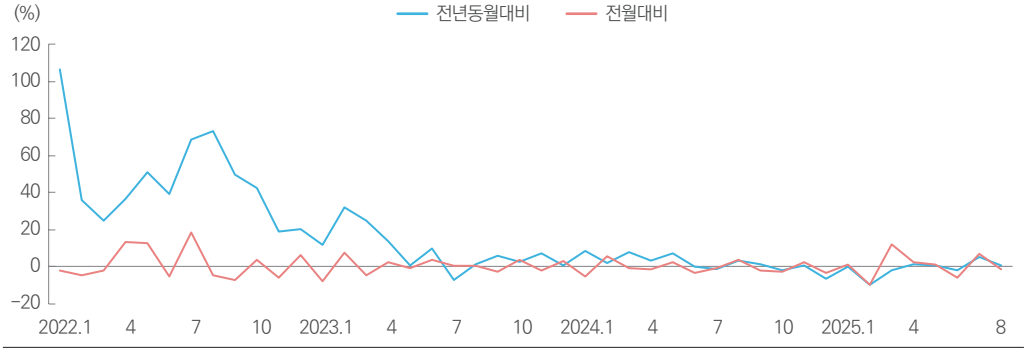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생산은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4.8%), 경기장 운영업(6.1%)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8월 공연건수가 2,446건, 매출액이 1,73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4.5%, 15.9% 증가한 데 기인

전월대비로는 1.4% 감소하였는데, 이는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9%)이 전월 17.9% 증가한 기저효과 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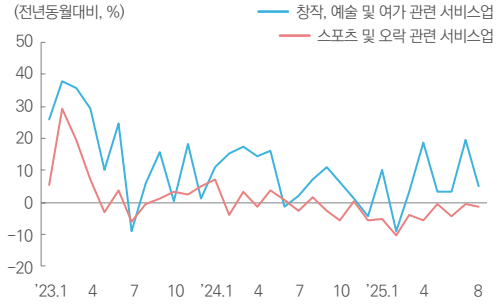
- 생산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2.1 → (7월) 5.3 → (8월) 0.5
- 생산증감률(전월대비, %): ('25.6월) -6.0 → (7월) 7.3 → (8월) -1.4

| 그림 46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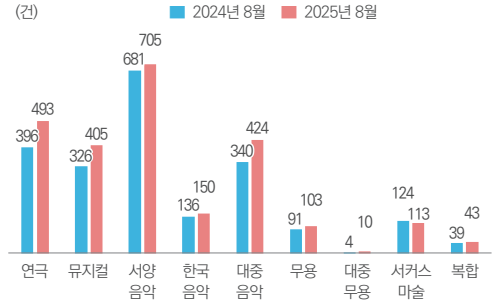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7 | 예술스포츠여가업 업종별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국가데이터처, 「서비스업동향조사」

| 그림 48 | 장르별 공연 현황



자료: 공연예술통합전산망

Ⅱ 수출

1 13대 산업 수출

■ 2025년 9월 중 주요 13대 산업[4)5)]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전년동월대비: 13대 산업의 수출은 511.9억달러로 이차전지(-8.8%), 무선통신기기(-6.9%), 컴퓨터·주변장치(-5.7%) 등이 감소하였으나, 바이오헬스(35.8%), 반도체(22.0%), 조선(21.9%), 자동차(14.2%) 등을 중심으로 11.0% 증가

- 반도체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 자동차 수출은 4개월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기계도 증가세로 전환
- 수출액(억달러): ('25.6월) 459.6 → (7월) 466.7 → (8월) 460.7 → (9월) 511.9
-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2.8 → (7월) 5.5 → (8월) 1.8 → (9월) 11.0

전월대비: 조선(-8.0%)만이 전월대비 감소한 가운데 13대 산업 수출은 전월대비 11.1% 증가

- 증감률(전월대비, %): ('25.6월) 3.4 → (7월) 1.5 → (8월) -1.3 → (9월) 11.1

| 표 1 | 산업별 수출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6월	7월	8월	9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대비
13대 산업(수출액)	446.9	442.6	452.5	461.3	459.6	466.7	460.7	511.9	11.1
13대 산업	7.9	15.2	14.7	9.6	2.8	5.5	1.8	11.0	
반도체	50.9	50.2	38.8	37.1	11.5	31.6	27.1	22.0	10.0
자동차	-3.2	-6.3	-4.2	1.8	2.3	4.3	3.9	14.2	16.2
화학	11.8	18.2	6.4	-1.2	-13.7	-9.0	-17.4	-2.8	8.0
일반기계	-8.3	17.7	-6.0	-13.4	-7.7	-17.5	-10.4	10.3	21.5
석유	10.5	15.7	-2.0	-18.5	0.8	-5.8	-5.1	3.7	0.0
철강	-24.3	-5.2	-2.1	-4.8	-8.2	-3.0	-15.4	-4.2	10.8
조선	-39.8	-36.5	78.3	75.1	64.0	107.7	11.9	21.9	-8.0
컴퓨터주변장치	37.3	20.1	35.1	31.7	-15.9	-12.8	-13.2	-5.7	7.3
무선통신기기	3.8	53.3	50.1	16.5	-3.8	-17.5	-14.1	-6.9	12.3
섬유	-11.2	1.3	-5.1	-8.5	-9.7	-5.5	-12.6	7.2	25.9
가전	-0.3	9.0	-5.1	-14.0	-15.5	-12.0	-11.7	12.2	26.5
이차전지	-20.5	-0.3	-4.6	-11.8	-19.6	-21.1	-31.3	-8.8	30.9
바이오헬스	-6.1	28.9	38.8	10.0	36.2	-4.8	-11.7	35.8	48.8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4) 생산과 수출의 분류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의 업종별 산업분류(KSIC)와 산업통상부의 품목별 산업분류기준(MTI)를 매칭하여 분류
5) 자동차(수송기계, 자동차부품을 포함),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주변장치, 이차전지, 바이오헬스를 포함

반도체 수출은 서버용 고부가가치메모리(HBM, DDR5 등)의 높은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사상최고 수출액을 경신

- 반도체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4.9월) 136.2(37.1%) → ('25.9월) 166.1(22.0%)
- DRAM 고정가격(DDR4 8Gb, 달러): ('24.4Q) 1.47 → ('25.1Q)1.35 → (2Q)2.12 → (9월) 6.3

자동차 수출은 친환경자동차와 내연기관자동차 모두 증가한 가운데, EU, CIS 등으로의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4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 9월 수출액을 기록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4.9월) 72.9(1.8%) → ('25.9월) 83.3(14.2%)
- 완성차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4.9월) 54.8(4.9%) → ('25.9월) 64.0(16.8%)
- 자동차부품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4.9월) 18.1(-6.6%) → ('25.9월) 19.2(6.0%)

일반기계 수출은 아세안, 중동 등 주요 신흥시장의 인프라, 설비투자 수요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4.9월) 38.0(-13.4%) → ('25.9월) 42.0(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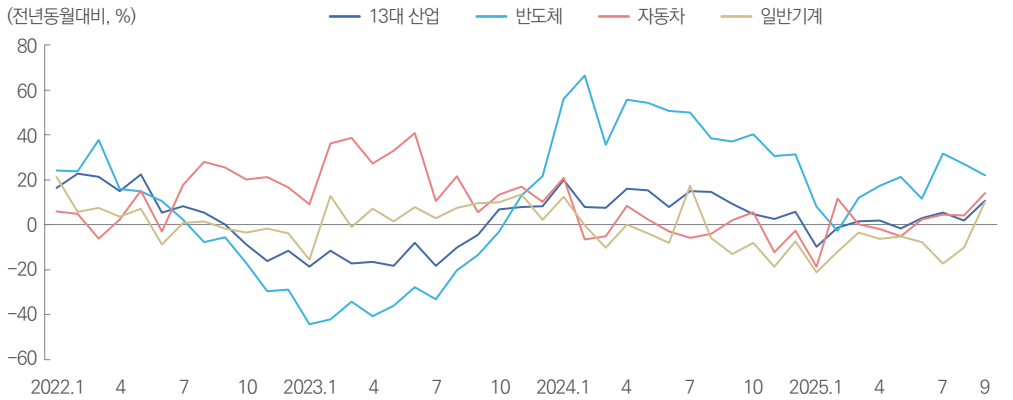
이차전지 수출은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핵심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등으로 인하여 감소세 지속

- 이차전지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4.9월) 7.0(-11.8%) → ('25.9월) 6.3(-8.8%)
- 탄산리튬 가격(CNY/Kg): ('24.9월) 70.6 → ('25.8월) 77.3 → ('25.9월) 72.0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신규 스마트폰 제품의 출시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국, 아세안 시장의 휴대폰 부품 수요 둔화로 계속 감소

-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억달러/증감률): ('24.9월) 18.8(16.5%) → ('25.9월) 17.5(-6.9%)

| 그림 1 | 13대 산업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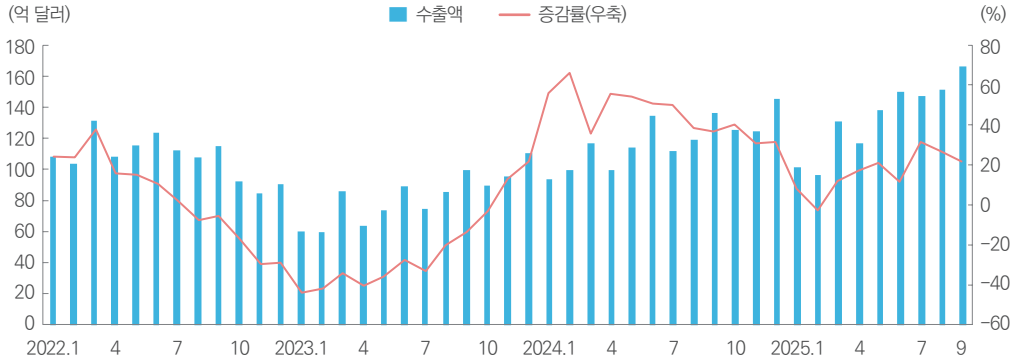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0% 증가하여 166.1억달러를 기록

- 반도체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7월) 31.6 → (8월) 27.1 → (9월) 22.0
- 반도체 수출액(억달러): ('25.7월) 147.1 → (8월) 151.0 → (9월) 166.1

| 그림 2 | 반도체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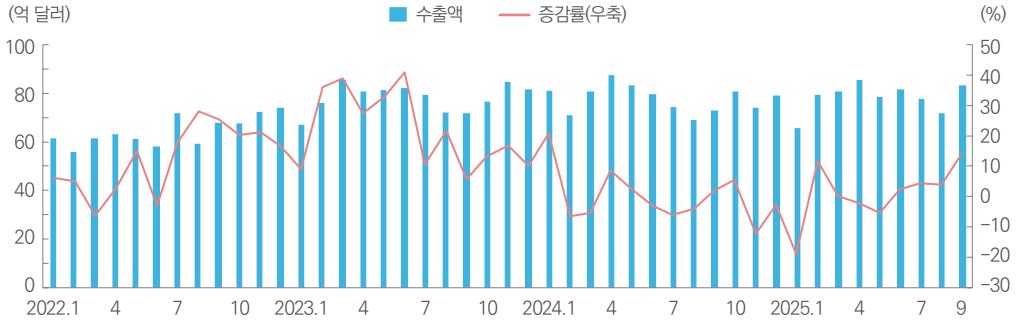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자동차: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2% 증가하여 83.3억달러를 기록

- 자동차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7월) -4.4 → (8월) 4.0 → (9월) 14.2
- 자동차 수출액(억달러): ('25.7월) 77.5 → (8월) 71.6 → (9월) 83.3

| 그림 3 | 자동차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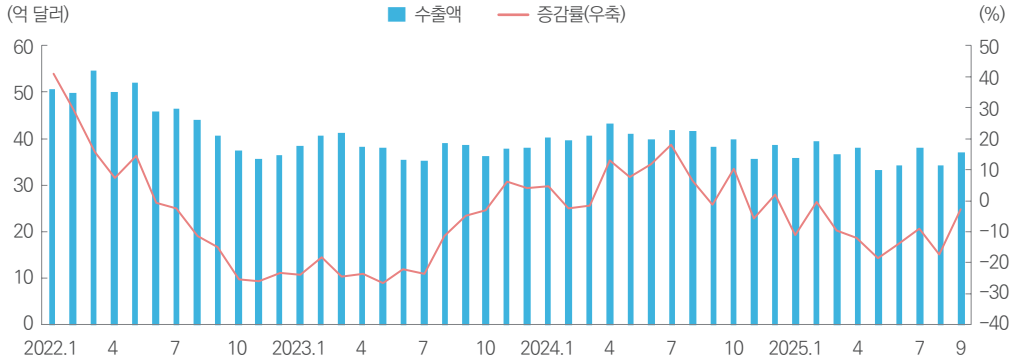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화학: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8% 감소하여 37.1억달러를 기록

- 화학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7월) -9.0 → (8월) -17.4 → (9월) -2.8
- 화학 수출액(억달러): ('25.7월) 38.0 → (8월) 34.3 → (9월) 37.1

| 그림 4 | 화학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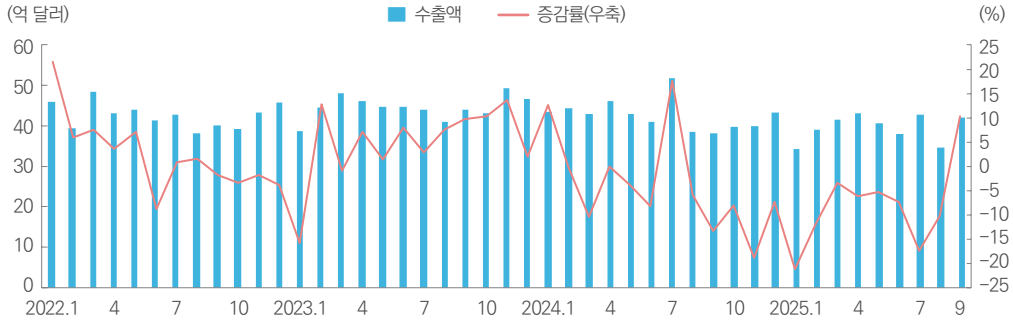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일반기계: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하여 42.0억달러를 기록

- 일반기계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7월) -17.5 → (8월) -10.4 → (9월) 10.3
- 일반기계 수출액(억달러): ('25.7월) 42.6 → (8월) 34.6 → (9월) 42.0

| 그림 5 | 일반기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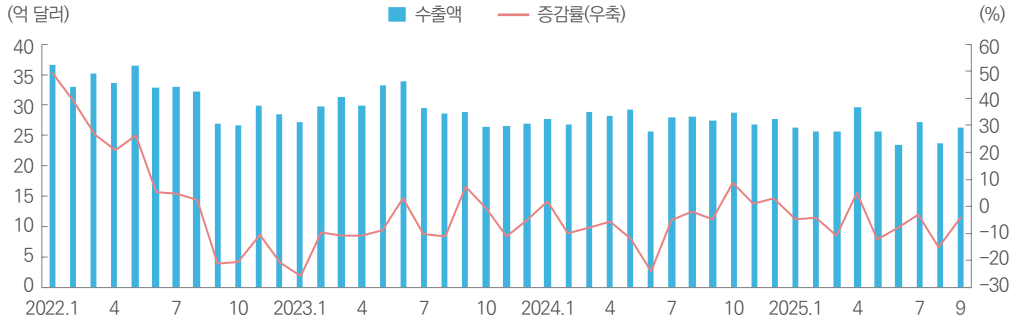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철강: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하여 26.3억달러를 기록

- 철강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7월) -3.0 → (8월) -15.4 → (9월) -4.2
- 철강 수출액(억달러): ('25.7월) 27.2 → (8월) 23.7 → (9월) 26.3

| 그림 6 | 철강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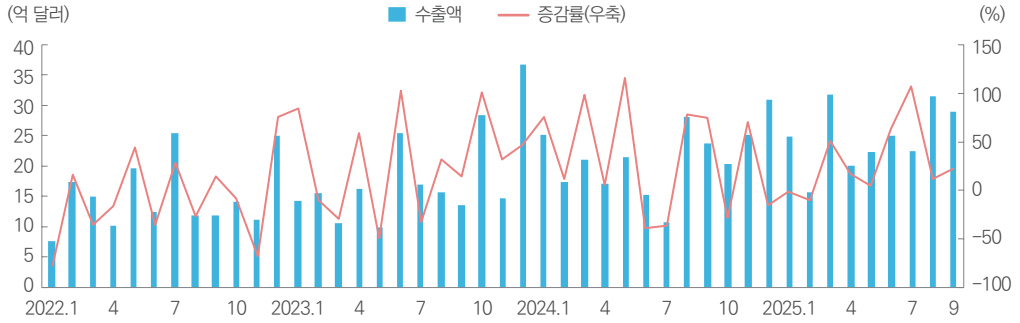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조선: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1.9% 증가하여 28.9억달러를 기록

- 조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7월) 107.6 → (8월) 11.9 → (9월) 21.9
- 조선 수출액(억달러): ('25.7월) 22.4 → (8월) 31.4 → (9월) 28.9

| 그림 7 | 조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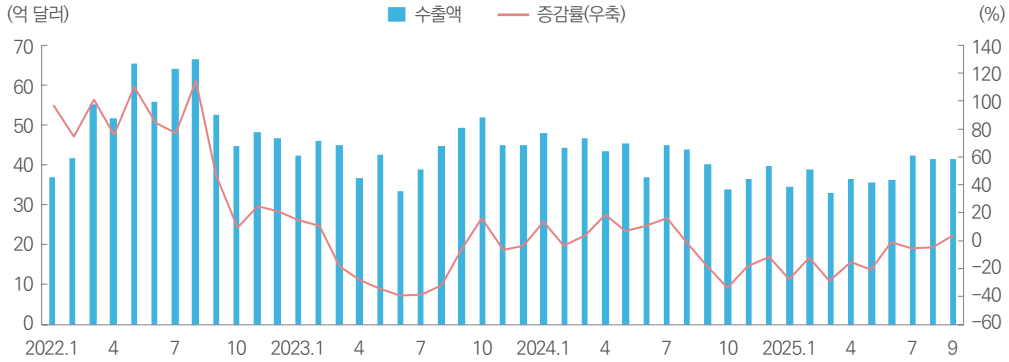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석유: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하여 41.5억달러를 기록

- 석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7월) -5.8 → (8월) -5.1 → (9월) 3.7
- 석유 수출액(억달러): ('25.7월) 42.3 → (8월) 41.5 → (9월) 41.5

| 그림 8 | 석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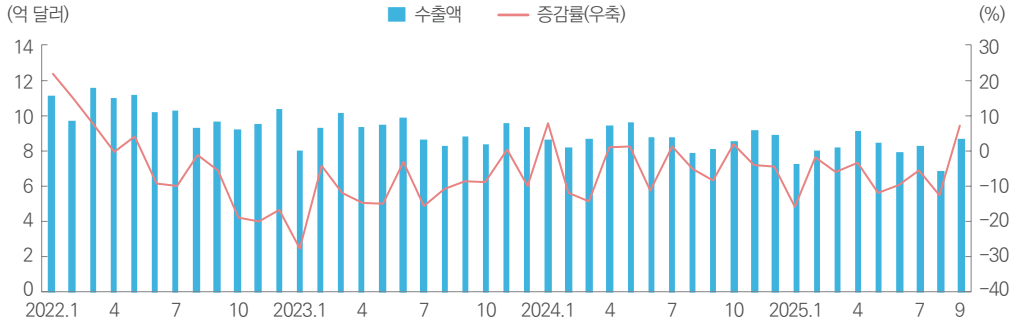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섬유: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2% 증가하여 8.7억달러를 기록

- 섬유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7월) -5.5 → (8월) -12.6 → (9월) 7.2
- 섬유 수출액(억달러): ('25.7월) 8.3 → (8월) 6.9 → (9월) 8.7

| 그림 9 | 섬유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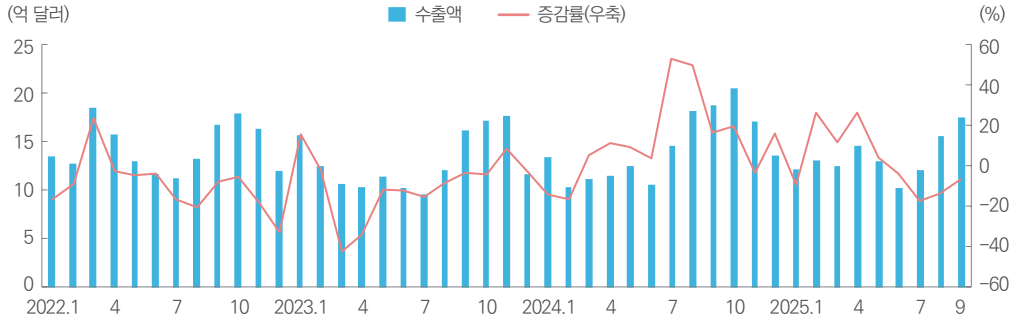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무선통신기기: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9% 감소하여 17.5억달러를 기록

- 무선통신기기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7월) -17.6 → (8월) -14.1 → (9월) -6.9
-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억달러): ('25.7월) 12.0 → (8월) 15.6 → (9월) 17.5

| 그림 10 | 무선통신기기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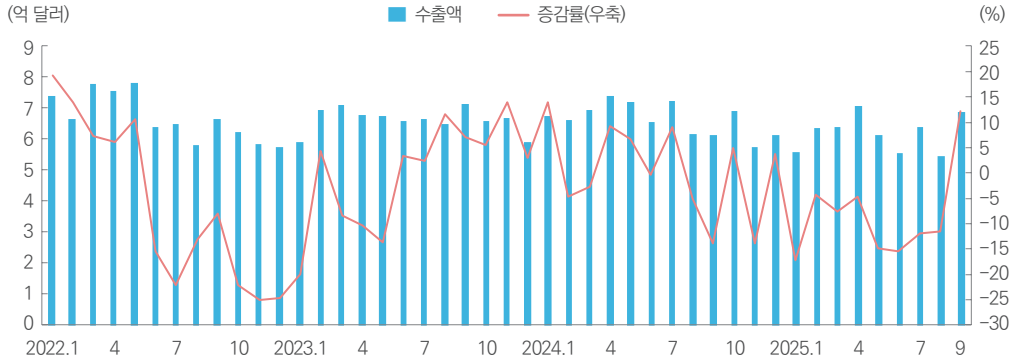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가전: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2% 증가하여 6.9억달러를 기록

- 가전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7월) -12.0 → (8월) -11.7 → (9월) 12.2
- 가전 수출액(억달러): ('25.7월) 6.4 → (8월) 5.4 → (9월) 6.9

| 그림 11 | 가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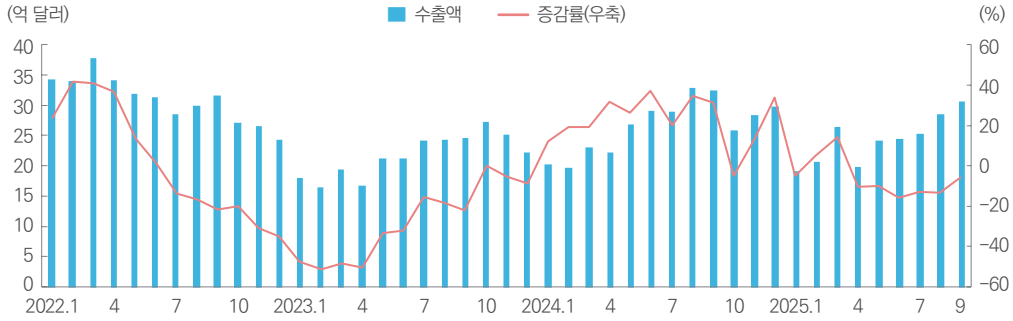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컴퓨터·주변장치: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5.7% 감소하여 30.6억달러를 기록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7월) -12.8 → (8월) -13.2 → (9월) -5.7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액(억달러): ('25.7월) 25.2 → (8월) 28.5 → (9월) 30.6

| 그림 12 | 컴퓨터·주변장치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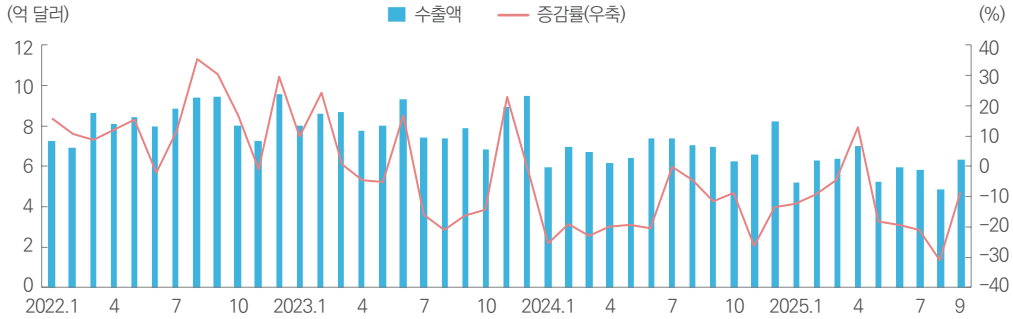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이차전지: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8.8% 감소하여 6.4억달러를 기록

- 이차전지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7월) -21.1 → (8월) -31.3 → (9월) -8.8
- 이차전지 수출액(억달러): ('25.7월) 5.8 → (8월) 4.9 → (9월) 6.4

| 그림 13 | 이차전지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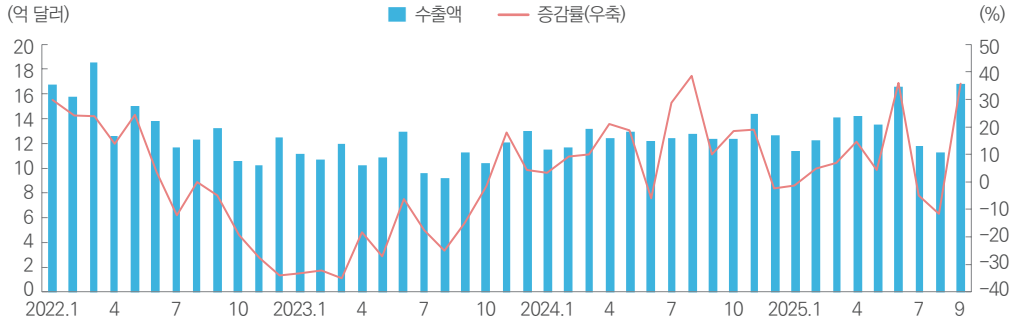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 바이오헬스: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5.8% 증가하여 16.8억달러를 기록

- 바이오헬스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7월) -4.8 → (8월) -11.7 → (9월) 35.8
- 바이오헬스 수출액(억달러): ('25.7월) 11.8 → (8월) 11.3 → (9월) 16.8

| 그림 14 | 바이오헬스 수출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 주요 유망소비재[6]: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9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5.9% 증가, 전월대비 28.5% 증가하여 44.9억 달러를 기록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7월) 2.5 → (8월) -3.7 → (9월) 25.9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액(억 달러): ('25.7월) 37.1 → (8월) 34.9 → (9월) 44.9

| 표 2 | 주요 유망소비재 수출 동향

(단위: 억달러, 전년동월대비 %)

구분	2024				2025				
	6월	7월	8월	9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대비
유망소비재(수출액)	33.7	36.2	36.3	35.7	40.8	37.1	34.9	44.9	28.5
유망소비재	0.7	26.1	22.9	7.4	21.3	2.5	−3.7	25.9	
농수산식품	1.6	24.2	5.2	7.0	5.0	3.2	3.2	21.4	21.2
화장품	5.6	29.5	17.9	10.5	21.1	18.0	5.1	28.5	35.2
패션의류	−13.4	−4.4	−12.0	−14.1	−0.9	0.5	−0.7	19.8	29.0
생활유아용품	5.9	20.9	23.1	−0.8	16.6	−1.4	−13.5	16.9	14.2
의약품	−5.4	41.7	73.9	19.7	52.6	−10.3	−10.9	37.5	43.6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6)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새로운 수출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한 5대 유망소비재를 확정

2 10대 주요 지역별 수출

■ 9월 10대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은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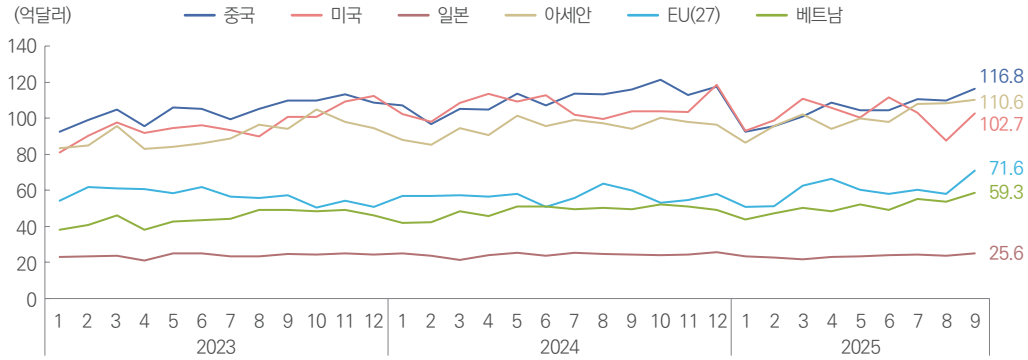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실적 개선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환, 대미국 수출은 감소

- 중국: 0.4%, 미국: -1.4%, 일본: 3.2, 베트남: 19.1%, 인도: 17.4%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 대EU 수출은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CIS: 54.4%, 중남미: 34.0%, EU(27): 19.3%, 아세안: 17.8%, 중동: 17.8%

| 그림 15 |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표 3 | 10대 주요 지역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가공단계별	2024				2025				
	6월	7월	8월	9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대비
중국	1.9	14.7	7.9	5.7	-2.6	-3.0	-3.1	0.4	6.2
미국	17.7	9.4	10.9	3.3	-0.8	1.5	-12.1	-1.4	17.5
일본	-6.8	9.9	5.8	-1.3	2.4	-4.4	-5.0	3.2	7.7
아세안	11.8	11.7	0.8	-0.2	2.6	9.2	11.8	17.8	1.6
EU(27)	-18.2	-1.5	15.6	4.7	14.4	8.7	-9.4	19.3	23.3
중동	1.8	55.8	-3.2	14.9	17.2	-36.4	1.0	17.8	33.9
중남미	-9.1	29.9	28.5	-5.9	3.2	3.5	-9.6	34.0	31.5
CIS	-33.7	3.6	11.0	8.0	18.6	21.3	8.7	54.4	36.0
베트남	18.8	12.5	2.1	1.3	-3.6	11.5	7.0	19.1	9.8
인도	8.9	12.9	2.1	-10.3	1.9	10.3	-2.7	17.4	8.4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무역협회

3 가공단계별 수출

■ 8월 가공단계별 「수출」 중 1차산품이 전년동월대비 가장 크게 증가

1차산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2.9% 증가, 전월대비 15.6% 감소

- 1차산품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9.6 → (7월) 29.1 → (8월) 22.9

소비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전월대비 6.6% 감소

- 소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3.3 → (7월) 6.1 → (8월)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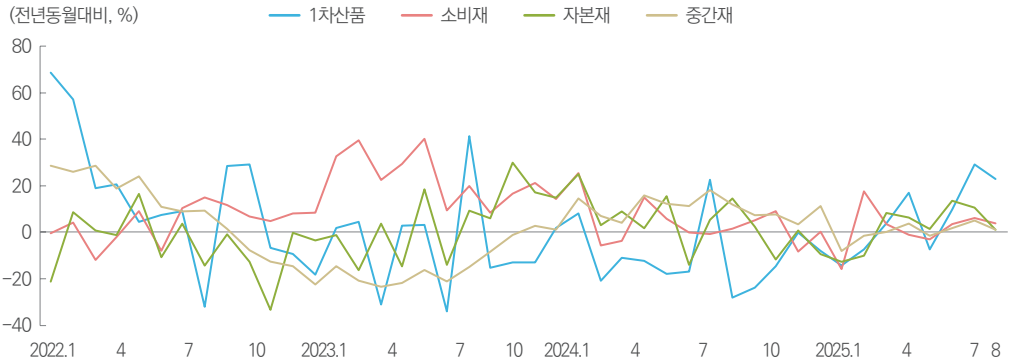
자본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 증가, 전월대비 1.0% 감소

- 자본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3.6 → (7월) 10.7 → (8월) 1.2

중간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전월대비 3.5% 감소

- 중간재 수출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5.6월) 1.7 → (7월) 5.1 → (8월) 1.1

| 그림 16 | 가공단계별 수출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표 4 | 가공단계별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4			2025			
	6월	7월	8월	6월	7월	8월	전월대비
1차산품	−17.1	22.5	−28.2	9.6	29.1	22.9	−15.6
소비재	−0.3	−0.9	1.3	3.3	6.1	3.7	−6.6
자본재	−13.9	5.3	14.8	13.6	10.7	1.2	−1.0
중간재	11.4	18.4	11.9	1.7	5.1	1.1	−3.5

자료: 한국무역협회

III 에너지·원자재

1 에너지

가. 국제 가격

■ **2025년 9월 「원유」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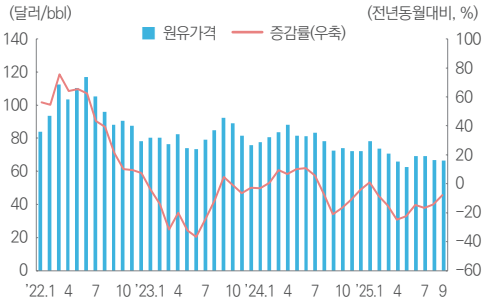
원유 가격은 66.5달러로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8.2% 하락

- 원유가격(달러/bbl): ('25.7월) 69.2 → (8월) 66.7 → (9월) 66.5
- 원유가격(전년동월대비, %): ('25.7월) -16.9 → (8월) -14.6 → (9월) -8.2

국제 유가는 OPEC+[7] 원유 증산 지속, 미국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하락세를 보임

- OPEC+는 10월 원유 13.7만b/d를 추가 증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2023년 5월 이후 시행되었던 자발적 감산분 1.66백만b/d을 추가 해소할 예정(Reuters, 9.1)
-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개월 연속 경기위축 수준(50 미만)을 보이고 있고 주택 경기도 둔화되었으며 7월 구인 건수가 10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둔화 양상을 보임(Reuters, 9.3)

| 그림 1 | 원유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 표 1 | 원유 가격 동향

(단위: 달러/bbl, %)

구분	2024	2025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9월	7월	8월	9월		
Brent	74.3	71.0	68.2	68.0	-8.5	-0.4
Dubai	73.4	69.2	67.9	67.8	-7.7	-0.2
WTI	69.6	67.4	64.1	63.7	-8.5	-0.6
평균[1]	72.4	69.2	66.7	66.5	-8.2	-0.4

주: [1]Brent, Dubai, WTI의 평균
자료: 세계은행

7) 석유수출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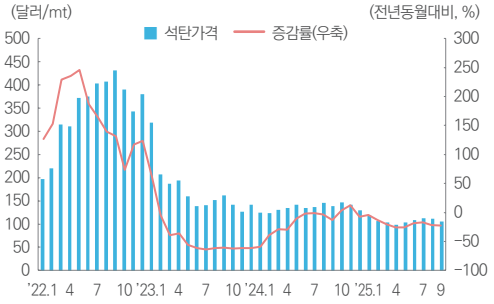
■ 2025년 9월 「석탄」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하락

석탄 가격은 톤당 106.3달러(호주시장 기준)로 전년동월대비 23.6%, 전월대비 5.2% 하락

- 석탄 가격(달러/mt): ('25.7월) 112.9 → (8월) 112.2 → (9월) 106.3
- 석탄 가격(전년동월대비, %): ('25.7월) -17.9 → (8월) -23.1 → (9월) -23.6

석탄 가격 하락은 주요국의 저탄소 에너지원 선호에 따른 발전용 석탄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 등의 생산량 확인에 기인

| 그림 2 | 석탄 가격 추이



주: 호주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 표 2 | 석탄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

구분	2024	2025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9월	7월	8월	9월		
호주	139.2	112.9	112.2	106.3	-23.6	-5.2
남아프리카	106.1	93.6	93.3	92.3	-13	-1.1
평균	122.6	103.3	102.7	99.3	-19	-3.3

자료: 세계은행

■ 2025년 9월 중 「천연가스」 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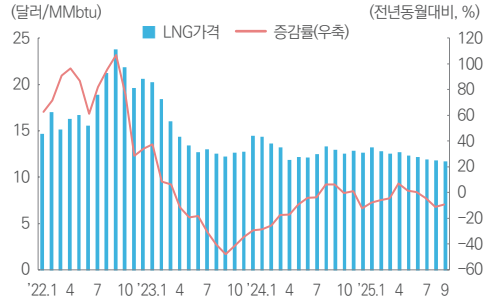
천연가스지수는 미국의 전력생산, 산업수요, LNG 수출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천연가스가격지수(2010=100): ('25.7월) 102.1 → (8월) 96.3 → (9월) 96.9
- 천연가스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5.7월) 23.2 → (8월) 4.7 → (9월) 5.2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MMbtu당 11.7달러(일본시장 기준)로 전년동월대비 9.7%, 전월대비 0.7% 하락

- 아시아 지역의 경우 거시경제 불확실성, 높은 LNG 현물가격, 동북아 지역의 온화한 날씨 등이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
- 천연가스가격(달러/MMbtu): ('25.7월) 11.9 → (8월) 11.8 → (9월) 11.7
- 천연가스가격(전년동월대비, %): ('25.7월) -4.6 → (8월) -11.5 → (9월) -9.7

| 그림 3 |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추이



주: 일본시장 기준
자료: 세계은행

| 표 3 |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동향

(단위: 달러/MMbtu, %)

구분	2024	2025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9월	7월	8월	9월		
미국	2.3	3.2	2.9	3.0	32.1	2.2
유럽	11.8	11.6	11.1	11.1	-5.7	-0.3
일본	13.0	11.9	11.8	11.7	-9.7	-0.7

자료: 세계은행

나. 전력

■ 8월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8월 발전량은 57,155GWh로 전년동월대비 2.7%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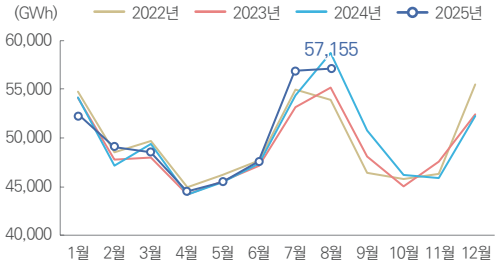
- 발전량(GWh): ('25.6월) 47,492 → (7월) 56,939 → (8월) 57,155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6월) 0.3 → (7월) 4.6 → (8월) -2.7

1~8월 누적 발전량은 401,384GWh로 전년동기간대비 0.2% 증가

- 1~8월 누적 발전량(GWh): ('23년) 395,022 → ('24년) 400,657 → ('25년) 401,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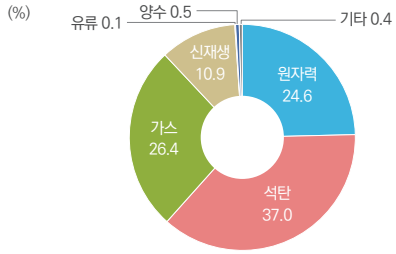
8월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은 석탄 37.0%, 가스 26.4%, 원자력 24.6%, 신재생 10.9% 순

| 그림 4 | 월별 발전량(전력공급)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그림 5 |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8월 「전력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력 소비를 의미하는 8월 전력판매량은 52,119GWh로 전년동월대비 0.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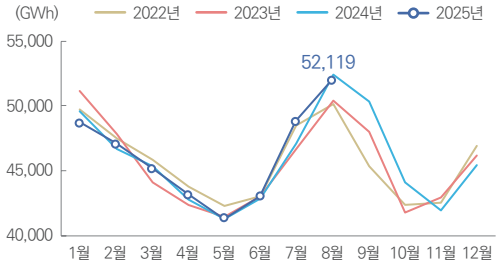
- 전력판매량(GWh): ('25.6월) 43,006 → (7월) 48,824 → (8월) 52,119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6월) 0.4 → (7월) 3.7 → (8월) -0.6

1~8월 누적 전력판매량은 369,303GWh로 전년동기간대비 0.4% 증가

- 1~8월 누적 전력판매량(GWh): ('23년) 367,038 → ('24년) 367,999 → ('25년) 369,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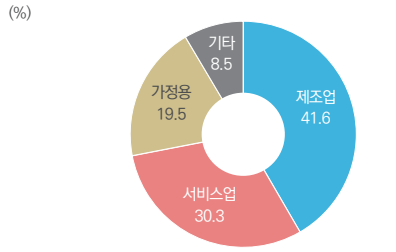
용도별 전력소비 비중은 제조업 41.6%, 서비스업 30.3%, 가정용 19.5% 순

| 그림 6 | 월별 전력 판매량(전력수요)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그림 7 | 용도별 전력소비 비중



주: 기타는 공공용, 농수산업, 광업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월보」

■ 8월 「최대전력」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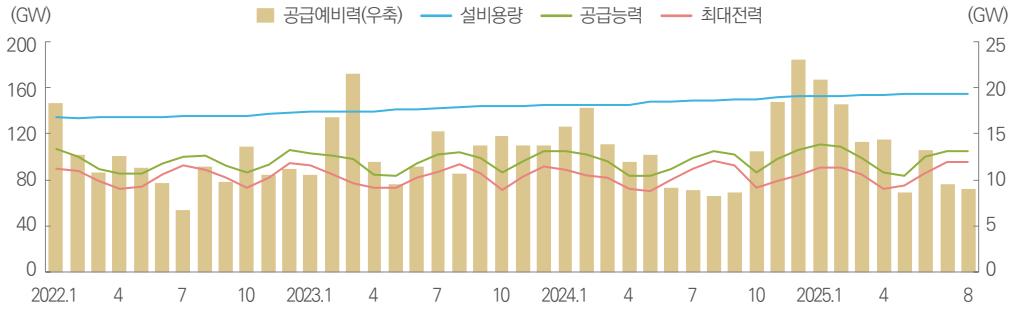
8월 최대전력은 96.0GW로 전년동월대비 1.2% 감소

- 최대전력(GW): ('25.6월) 85.6 → (7월) 95.7 → (8월) 96.0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6월) 6.9 → (7월) 6.0 → (8월) -1.2

전력공급안정성을 의미하는 공급예비력은 9.1GW, 전력공급예비율은 9.4%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8)]

- 공급예비력(GW): ('25.6월) 13.2 → (7월) 9.5 → (8월) 9.1
- 공급예비율(%): ('25.6월) 15.4 → (7월) 9.9 → (8월) 9.4

| 그림 8 | 최대전력 수급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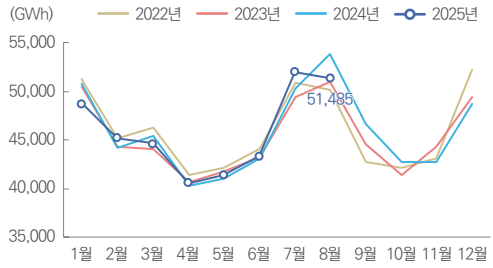
■ 8월 「전력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8월 전력거래량[9)]은 51,485GWh로 전년동월대비 4.5% 감소

- 전력거래량(GWh): ('25.6월) 43,228 → (7월) 52,114 → (8월) 51,485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6월) 0.5 → (7월) 3.5 → (8월)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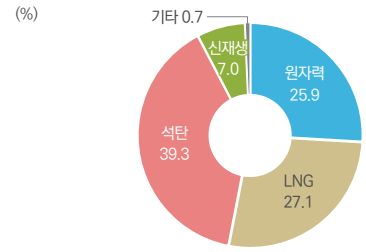
연료원별 비중은 석탄 39.3%, LNG 27.1%, 원자력 25.9%, 신재생 7.0% 순

| 그림 9 | 월별 전력거래량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그림 10 | 연료원별 전력거래량 비중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8)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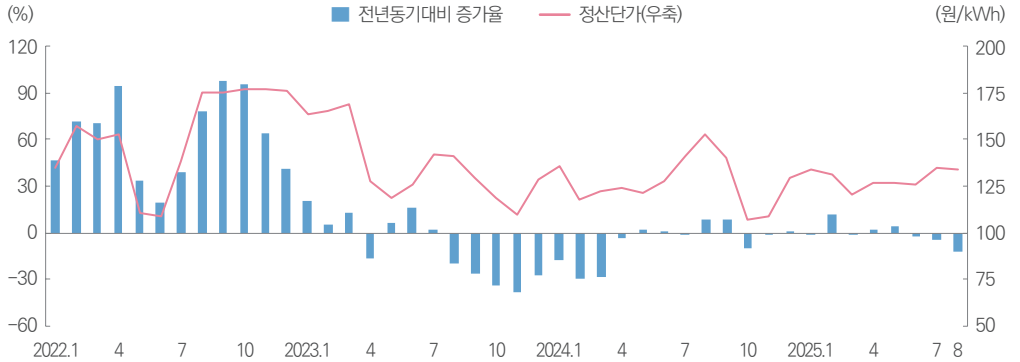
9)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거래량(PPA거래량 불포함)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 8월 「정산단가」는 전년동월대비 하락

8월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34.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3% 하락

- 정산단가(원/kWh): ('25.6월) 125.7 → (7월) 134.5 → (8월) 134.0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5.6월) -1.6 → (7월) -4.8 → (8월) -12.3

| 그림 11 | 정산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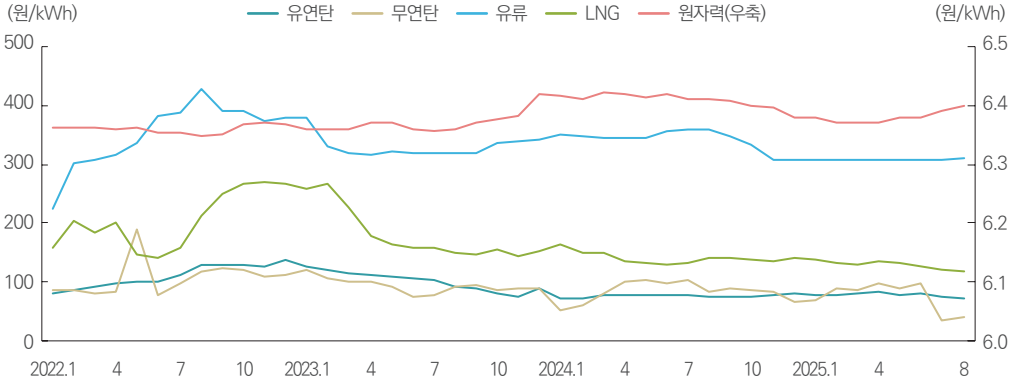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8월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는 전년동월대비 원자력, 유연탄, 무연탄, 유류, LNG가 모두 하락

- 연료비단가[10](원/kWh): (원자력)6.4, (유연탄)70.9, (무연탄)39.2, (유류)310.0, (LNG)118.0
- 연료비단가(전년동월대비, %): (원자력)-0.2, (유연탄)-6.7, (무연탄)-52.5, (유류)-11.0, (LNG)-15.2

| 그림 12 | 에너지원별 연료비단가



자료: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10) 연료비단가는 발전비용 중 연료비만을 의미함

2 비철금속

■ 2025년 9월 「비철금속」가격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상승

비철금속의 가격은 미 상무부의 철광석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 확대[11], 에너지전환 관련 구리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7.4%, 전월대비 2.9% 상승

- 비철금속 가격지수(2010=100): ('25.7월) 110.3 → (8월) 110.0 → (9월) 113.1
- 비철금속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5.7월) 3.2 → (8월) 6.3 → (9월) 7.4

알루미늄은 전년동월대비 8.3%, 전월대비 2.2% 상승

- 알루미늄 가격(달러/톤): ('25.7월) 2,606 → (8월) 2,597 → (9월) 2,653
- 알루미늄 가격(전년동월대비, %): ('25.7월) 11.0 → (8월) 10.8 → (9월) 8.3

철광석은 전년동월대비 11.3%, 전월대비 3.5% 상승

- 철광석 가격(달러/톤): ('25.7월) 97 → (8월) 100 → (9월) 103
- 철광석 가격(전년동월대비, %): ('25.7월) -9.0 → (8월) -0.2 → (9월) 11.3

구리는 전년동월대비 8.1%, 전월대비 3.2% 상승

- 구리 가격(달러/톤): ('25.7월) 9,771 → (8월) 9,670 → (9월) 9,984
- 구리 가격(전년동월대비, %): ('25.7월) 4.1 → (8월) 7.8 → (9월)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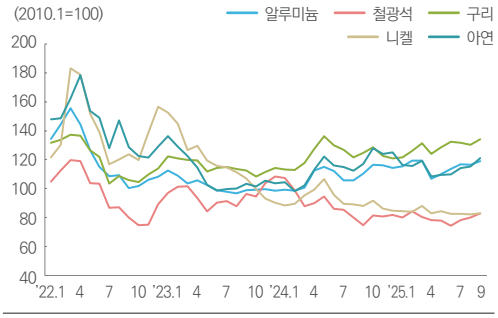
니켈은 전년동월대비 6.0% 하락, 전월대비 1.0% 상승

- 니켈 가격(달러/톤): ('25.7월) 15,034 → (8월) 14,949 → (9월) 15,106
- 니켈 가격(전년동월대비, %): ('25.7월) -8.0 → (8월) -8.2 → (9월) -6.0

아연은 전년동월대비 3.4%, 전월대비 5.2% 상승

- 아연 가격(달러/톤): ('25.7월) 2,763 → (8월) 2,789 → (9월) 2,933
- 아연 가격(전년동월대비, %): ('25.7월) -0.5 → (8월) 2.8 → (9월) 3.4

| 그림 13 | 비철금속 가격지수 추이



자료: 세계은행, LME

| 표 4 | 비철금속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

구분	2024	2025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9월	7월	8월	9월		
알루미늄	2,450	2,606	2,597	2,653	8.3	2.2
철광석	93	97	100	103	11.3	3.5
구리	9,237	9,771	9,670	9,984	8.1	3.2
니켈	16,077	15,034	14,949	15,106	-6.0	1.0
아연	2,837	2,763	2,789	2,933	3.4	5.2

자료: 세계은행, LME

11) 미 상무부는 2025년 3월 12일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고 6월 4일 관세율을 50%로 인상하였으며 8월 18일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확대

3 농산물

■ 2025년 9월 「농산물」가격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상승[12)]

농산물 가격지수(2010=100): ('25.7월) 111.7 → (8월) 112.6 → (9월) 113.0

농산물 가격지수(전년동월대비, %): ('25.7월) −1.6 → (8월) 0.5 → (9월) −1.9

옥수수의 경우 전년도 브라질 작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6.7% 상승

- 옥수수 가격(달러/톤): ('25.7월) 192 → (8월) 185.5 → (9월) 197.4
- 옥수수 가격(전년동월대비, %): ('25.7월) 8.2 → (8월) 8.9 → (9월) 6.7

대두의 경우 전년도 미국의 공급여건 개선과 중국의 수요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3.2% 상승

- 대두 가격(달러/톤): ('25.7월) 410 → (8월) 407 → (9월) 404
- 대두 가격(전년동월대비, %): ('25.7월) -12.7 → (8월) 1.7 → (9월)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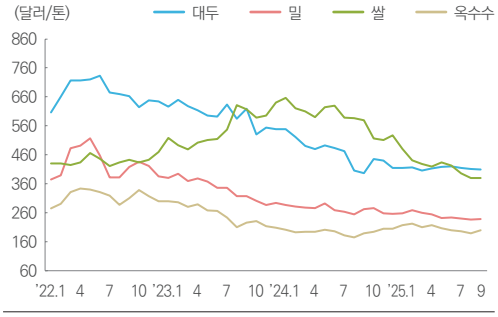
소맥의 경우 북반구 주요 수출국의 원활한 수확 진행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3.3% 하락

- 소맥 가격(달러/톤): ('25.7월) 235 → (8월) 231 → (9월) 234
- 소맥 가격(전년동월대비, %): ('25.7월) -9.7 → (8월) -7.9 → (9월) -13.3

쌀의 경우 주요 수출국인 인도의 수출금지 해제[13)], 필리핀 수입중단 발표[14)]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5.5% 하락

- 쌀 가격(달러/톤): ('25.7월) 392 → (8월) 375 → (9월) 374
- 쌀 가격(전년동월대비, %): ('25.7월) -33.6 → (8월) -36.3 → (9월) -35.5

| 그림 14 | 농산물 가격 추이



자료: 세계은행, CME

| 표 5 | 농산물 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

구분	2024	2025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9월	7월	8월	9월		
옥수수	185	192	185	197	6.7	6.4
대두	391	410	407	404	3.2	−0.7
밀	270	235	231	234	−13.3	1.1
쌀	580	392	375	374	−35.5	−0.3

자료: 세계은행, CME

12)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2025.9.

13) 인도는 국내외 쌀값이 상승하자 2022년 9월부터 싸라기(100% 부서진 쌀) 수출을 제한하였으나 싸라기 재고가 정부 목표치의 9배에 이르면서 2025년 3월 8일부터 수출 제한을 해제

14) 필리핀 정부는 농가 보호 목적으로 9월 1일부터 60일간 수입 중단을 발표

Ⅳ 환경

1 배출권거래[19)]

■ 8월 「지표배출권(KAU24)」의 전월대비 평균가는 하락, 종가는 상승

8월 KAU24[16)] 평균가는 톤당 8,496원으로 전월(8,499원)대비 3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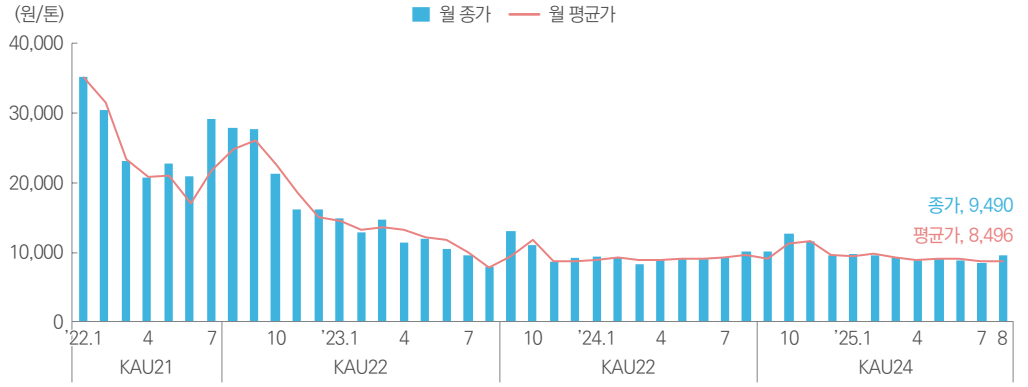
- KAU24 평균가(원/톤): ('25.6월) 8,743 → (7월) 8,499 → (8월) 8,496

8월 KAU24 종가는 톤당 9,490원으로 전월(8,420원)대비 1,070원 상승

- KAU24 종가(원/톤): ('25.6월) 8,700 → (7월) 8,420원 → (8월) 9,490

8월 KAU24의 최저가는 톤당 8,240원('25.8.13), 최고가는 톤당 9,520원('25.8.27)을 기록

| 그림 1 | 배출권 장내가격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15)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은 ① 할당 배출권(KAU) ② 상쇄배출권(KCU) ③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으로 구분되며 『NABO 산업동향&이슈』에서는 주요 배출권인 할당 배출권인 KAU을 살펴봄

16) 배출권거래에서 KAU(Korean Allowance Unit)는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이며, 1KAU는 이산화탄소(CO_2) 1톤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의미. KAU 뒤에 붙는 숫자는 해당연도의 탄소배출권을 나타냄

■ 8월 KAU24의 전월대비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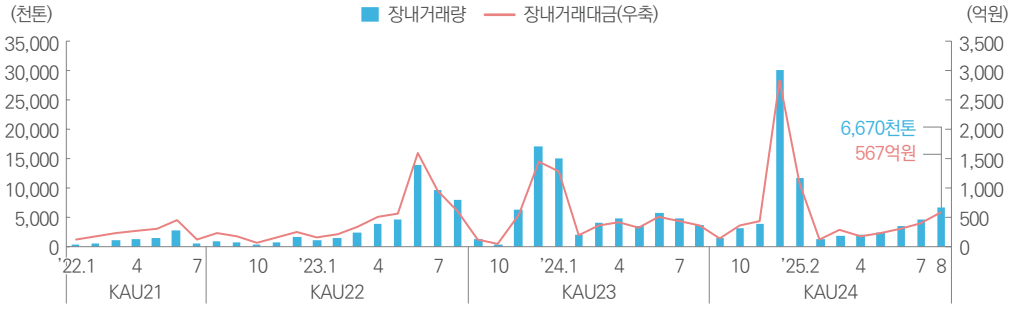
8월 KAU24의 거래량은 9,671천톤으로 전월대비 2,944천톤 증가

- KAU24 거래량(천톤): ('25.6월) 5,247 → (7월) 6,727 → (8월) 9,671
- 8월 KAU24의 장내거래량은 6,670천톤, 유상할당(경매)량은 1,500천톤이며, 장외거래량은 1,318천톤임
- KAU24 장내거래량(천톤): ('25.6월) 3,377 → (7월) 4,555 → (8월) 6,670

8월 KAU24의 거래대금은 832억원으로 전월대비 249억원 증가

- 8월 KAU24의 장내거래대금은 567억원, 유상할당(경매)대금은 134억원이며, 장외거래는 117억원
- KAU24 장내거래대금(억원): ('25.6월) 295 → (7월) 387 → (8월) 567

| 그림 2 | 배출권 장내 거래량 및 거래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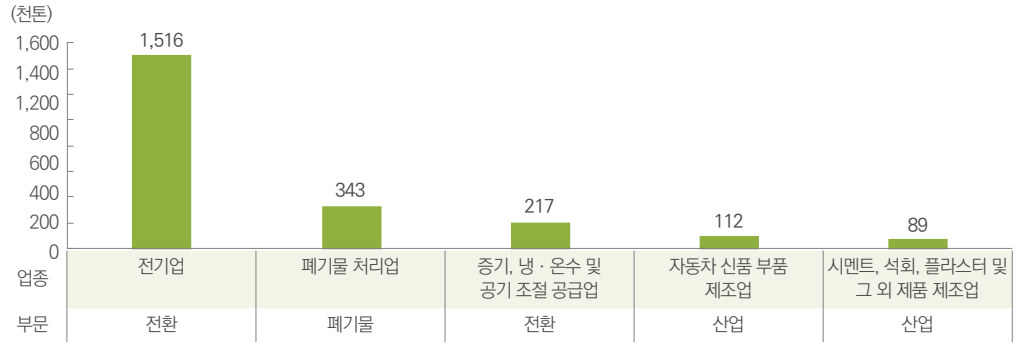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 8월 업종별 장내거래 최대 매수업은 전기업, 최대 매도업은 반도체 제조업

매수 상위 3개 업종은 ①전기업, ②폐기물 처리업, ③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순

- 업종별 매수량(천톤): 전기업(1,516), 폐기물 처리업(343), 증기, 냉·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217)

| 그림 3 | 매수 상위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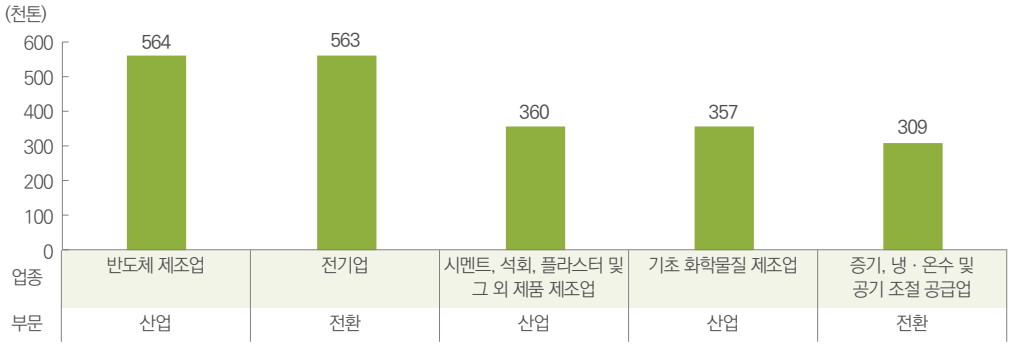


주: KAU24, 25의 업종별 장내거래 기준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매도 상위 3개 업종은 ①반도체 제조업, ②전기업, ③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 순

- 업종별 매도량(천톤): 반도체 제조업(564), 전기업(56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외 제품 제조업(360)

| 그림 4 | 매도 상위업종



주: KAU24, 25의 업종별 장내거래 기준
자료: 배출권시장정보플랫폼

2 재활용가능자원

■ 9월 조사일(10일)[17] 기준 「국내 폐지」 평균가격은 폐신문지가 상승, 폐골판지는 하락

폐신문지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0.3원 상승하여 130.1원

• 폐신문지(원/kg): ('25.7월) 129.1 → (8월) 129.8 → (9월) 130.1

폐골판지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0.3원 하락하여 90.8원

• 폐골판지(원/kg): ('25.7월) 90.3 → (8월) 90.5 → (9월) 90.8

■ 9월 조사일(10일) 기준 「국내 폐플라스틱」 평균가격은 PET 압축, PP 플레이크, EPS 잉고트가 하락, PP 펠렛이 상승

PET[18] 압축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12.9원 하락하여 459.4원

• PET 압축(원/kg): ('25.7월) 635.9 → (8월) 572.3 → (9월) 459.4

PP[19] 플레이크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3.2원 하락하여 455.3원

• PP 플레이크(원/kg): ('25.7월) 461.2 → (8월) 458.5 → (9월) 45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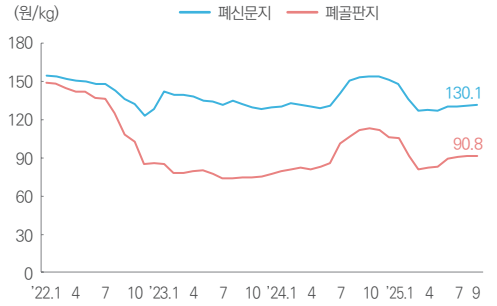
PP 펠렛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5원 상승하여 712.7원

• PP 펠렛(원/kg): ('25.7월) 712.4 → (8월) 711.2 → (9월) 712.7

EPS[20] 잉고트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7.9원 하락하여 603.8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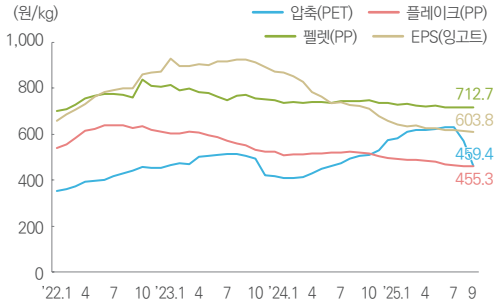
• EPS 잉고트(원/kg): ('25.7월) 612.0 → (8월) 611.7 → (9월) 603.8

| 그림 5 | 전국 폐지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그림 6 | 전국 폐플라스틱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17) 한국환경공단은 매월 10일 5종 26개 품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시행하여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를 발표
18)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은 무색이며 단단하고 충격에도 비교적 강한 플라스틱으로 음료수병, 생수병 등으로 활용
19) PP (Polypropylene)는 가벼우며, 내화학성과 내열성이 뛰어난 플라스틱으로 주류, 음료 상자 등으로 활용
20) EPS (Expanded Polystyrene)는 폴리스티렌 수지에 펜탄 또는 부탄 등 탄화수소가스를 주입한 후 증기로 부풀린 발포 제품으로 흔히 스티로폼(상품명)이라 부르며 전자제품, 식품 포장 등으로 활용

■ 9월 조사일(10일) 기준 「폐유리병」 평균가격은 백색, 갈색, 청록색이 모두 하락

유리병(백색) 컬렛[21]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0.5원 하락하여 154.7원

- 유리병(백색) 컬렛(원/kg): ('25.7월) 156.6 → (8월) 155.2 → (9월) 154.7

유리병(갈색) 컬렛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0.1원 하락하여 90.6원

- 유리병(갈색) 컬렛(원/kg): ('25.7월) 92.0 → (8월) 90.7 → (9월) 90.6

유리병(청록색) 컬렛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2.0원 하락하여 51.6원

- 유리병(청록색) 컬렛(원/kg): ('25.7월) 54.6 → (8월) 53.6 → (9월) 51.6

■ 9월 조사일(10일) 기준 「폐타이어(고무분말)」 평균가격은 하락

폐타이어(고무분말)[22]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4원 하락한 294.0원

- 폐타이어(고무분말, 원/kg): ('25.7월) 284.2 → (8월) 295.4 → (9월) 294.0

■ 9월 조사일(10일) 기준 「폐금속」 평균가격은 철스크랩, 철캔이 상승, 알루미늄캔이 하락

철스크랩[23]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10.4원 상승하여 294.6원

- 철스크랩(원/kg): ('25.7월) 287.2 → (8월) 284.2 → (9월) 2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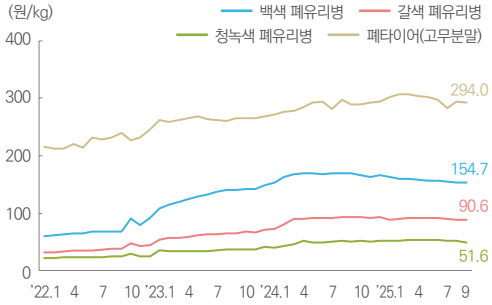
철캔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21.7원 상승하여 310.5원

- 철캔(원/kg): ('25.7월) 283.7 → (8월) 288.8 → (9월) 310.5

알루미늄캔 가격은 전월대비 kg당 3.3원 하락하여 2,5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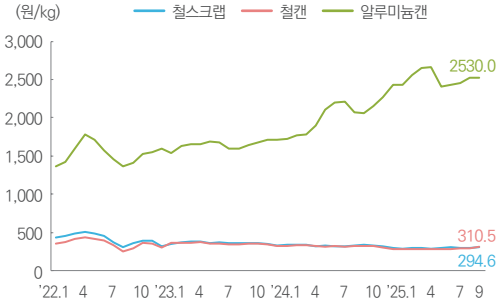
- 알루미늄캔(원/kg): ('25.7월) 2,463.2 → (8월) 2,533.3 → (9월) 2,530.0

| 그림 7 | 전국 폐유리병 및 폐타이어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 그림 8 | 전국 폐금속 평균 가격



자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보시스템

21) 컬렛(Cullet)은 유리병을 일정 크기로 파쇄한 상태
22) 폐타이어를 분쇄하여 가루 형태로 만든 재활용 소재
23) 사용 후 폐기된 철강 제품이나 철을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회수한 것으로 고철이라고도 함

V 산업 이슈

석유화학산업 위기 원인 진단과 시사점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 **권일 과장**

1 검토배경

■ 최근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에 더해 가격 경쟁력도 낮아지며 위기 심화

과거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원료인 원유 가격 변동과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여러 차례 경기 순환적 불황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나 최근의 위기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

- 1980년대 제2차 오일쇼크, 1990년대 걸프전쟁, 1990년대 IMF 외환 위기, 2012~2014년 기간 등에서 위기를 경험

2022년 이후 최근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글로벌 수요 부진에 중국의 자급률 확대, 공급 과잉, 그리고 우리 산업의 원가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위기

- 우리 석유화학 제품의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이 자국 내 생산설비를 확대하면서 우리 제품의 수입 수요를 대체
-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은 중동 국가들의 설비 투자 증가,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 및 수출 증가로 공급과잉 상태
-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생산 공정인 NCC(Naphtha Cracking Center) 설비는 중동 및 중국의 COTC(Crude Oil To Chemicals) 기술 등에 비해 가격 열위

| 표 1 | NCC, ECC, COTC 비교

	NCC	ECC	COTC
원료	원유 → 나프타(Naphtha)	천연가스 → 에탄(Ethan)	원유(Crude Oil)
공정	정유 공정에서 나프타를 추출하여 분해(한국, 중국, 일본)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에탄을 원료로 기초유분 생산(미국)	원유를 직접 석유화학 제품으로 전환
주요제품	올레핀 계열(에틸렌, 프로필렌)의 제품과 벤젠, 톨루엔 등 아로마틱 계열 제품까지 생산	에틸렌 생산이 대부분, NCC보다는 제품 다양성 열위	올레핀 계열 제품 중심, 제품 다양성 측면에서 NCC보다는 열위
특징	• 나프타를 분해하여 다양한 기초유분 생산 •투자비용 상대적으로 낮음 •수율(10~30%) •생산 공정 및 설비가 복잡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음	•천연가스 중 일부인 천연가스액(NGL)에서 추출한 에탄가스로 에틸렌을 생산 •셰일가스 원료의 ECC는 원가 경쟁력이 통상 NCC보다 높았는데. 최근 격차 축소	•공정 단순화, 생산량 증대, 운영 비용 절감 가능 •초기 투자비 매우 높음 •수율(50~80%) •에너지 소비 및 운영 비용 절감 가능

자료: 한국화학산업협회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이에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면서 기업도 자구책 추진

정부는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

석유화학업계도 자구책으로 생산능력 감축과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수, 대산, 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 단지에서 기업 간 설비 통합 및 합작 논의 진행

■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국내 및 해외사례를 통해 현재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시사점을 도출

우리나라 조선업은 2010년 이후 세계 조선업 시장의 침체와 중국의 급격한 부상 등 경쟁 심화로 인해 조선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으나, 질적 고도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를 경험하고, 중복 NCC 설비 감축 및 합병·매각, 고부가가치 제품(스페셜티, Specialty)으로 전환 등 성공적인 구조조정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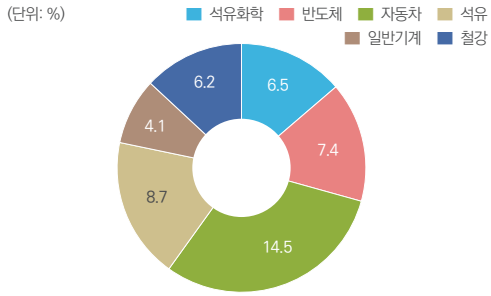
2 국내 석유화학산업 현황

■ 석유화학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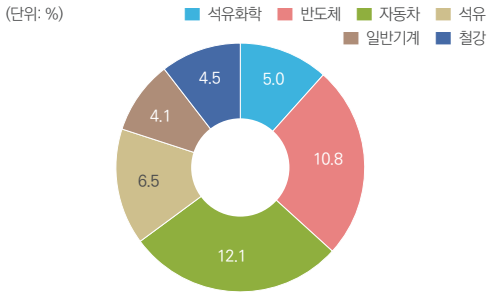
석유화학이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2023년 기준 생산액에서 6.5%, 부가가치에서 5.0% 비중을 차지하며 각각 4위

- 생산액은 자동차, 석유, 반도체, 석유화학 순
- 부가가치는 자동차, 반도체, 석유, 석유화학 순

| 그림 1 | 생산액 비중



| 그림 2 | 부가가치 비중



주: 2023년 기준 제조업에서 주요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전체 합은 100이 아님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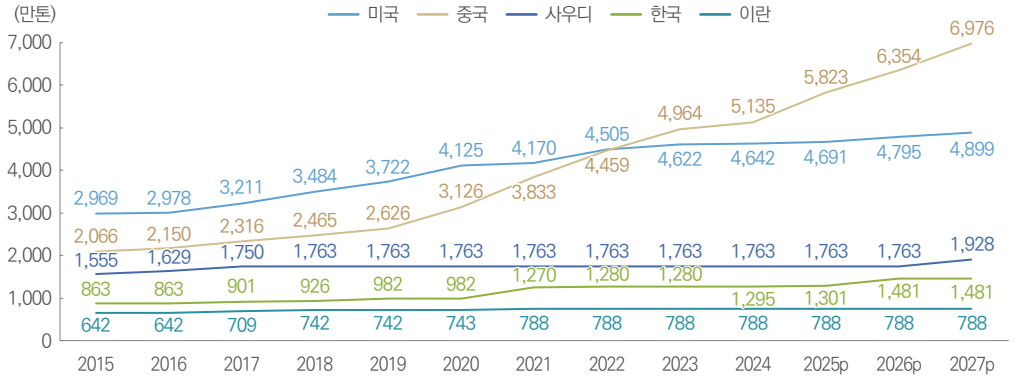
■ 석유화학산업의 핵심물질인 에틸렌의 우리나라 생산능력은 세계 4위 수준[1)]

석유화학의 핵심물질인 에틸렌의 국내 생산능력은 2025년 1,301만톤으로 세계 4위

- 우리나라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2015년 863만톤에서 2025년 1,301만톤으로 연평균 4.2% 증가하였으나, 중국은 2015년 2,066만톤에서 2025년 5,823만톤으로 연평균 10.9% 증가
- 우리나라와 중국 간 생산능력 차이는 2025년 3.3배에서 2027년에는 3.6배로 확대될 전망, 최근 우리 석유화학기업이 자구책으로 제시한 270~370만톤 감축을 고려하면 최대 4.5배로 더욱 확대 예상

1) 에틸렌은 석유화학산업의 쌀로 불리며, 통상적으로 국제비교 등에서는 에틸렌을 기준으로 나타냄

| 그림 3 | 2023~2027 주요국 에틸렌 생산능력 추이



자료: 한국화학산업협회, 「2025 석유화학 편람」

2024년 우리나라의 에틸렌 세계시장 점유율은 5.7% 수준으로 2021년 6.3% 대비 0.6%p 하락

| 표 2 | 주요국 에틸렌 생산능력 추이 및 전망

(단위: 만톤/년)

	2021	2022	2023	2024
우리나라 (점유율)	1,270 (6.3)	1,280 (6.0)	1,280 (5.7)	1,295 (5.7)
전세계	20,317	21,474	22,299	22,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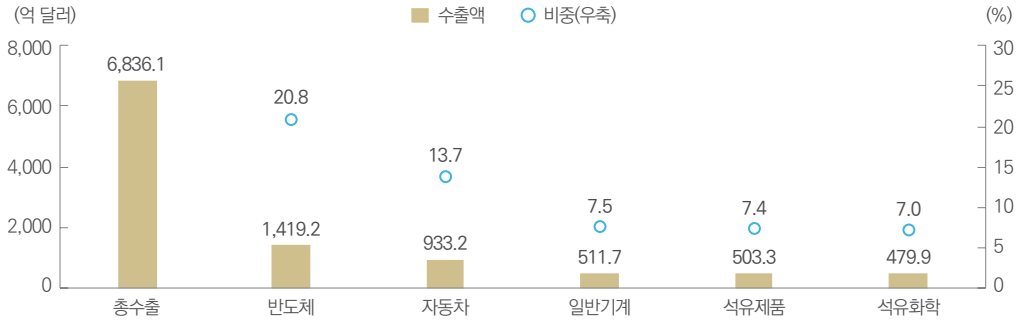
주: 우리나라는 2024년, 전세계는 2023년 기준
자료: 한국화학산업협회 자료 수정 인용

■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액은 2024년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에 이어 5위

석유화학의 수출액은 2024년 기준 479.9억달러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

- 석유화학 수출은 2021년 550.9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추세적으로 감소하면서, 2022년 이후 석유제품 수출액보다 작음

| 그림 4 | 주요 산업의 2024년 수출액 및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시스템」

석유화학의 세계시장 수출점유율은 2015~2023년 기간 중 2015년 5.5%에서 2020년 5.1%로 최저를 기록한 후 2023년 6.3%로 증가

- 우리나라 수출 주력상품인 반도체(7.9%) 다음으로 높은 수준

| 표 3 | 세계시장 수출 점유율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석유화학	5.5	5.5	5.9	5.8	5.6	5.1	5.7	6.0	6.3
반도체	7.1	7.0	9.8	11.2	8.5	8.2	8.3	7.7	7.9
자동차	4.5	4.1	3.7	3.5	3.7	3.7	3.9	4.2	4.4
석유	3.8	3.5	3.7	4.2	3.8	3.5	3.1	4.0	3.9
일반기계	2.7	2.6	2.5	2.4	2.6	2.6	2.3	2.3	2.5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시스템(https://www.istans.or.kr)」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수출의존도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에틸렌의 내수 대비 생산 비율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 245%, 중동 241%, 미국 146%, 서유럽 93%, 일본 88% 순[2)]

「2025 석유화학 편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석유화학제품의 자급률(=생산/국내 수요)은 합성수지 271%, 합섬원료 157%, 합성고무 212%로 모두 내수 규모를 넘어섬

2024년 기준 석유화학의 품목별 수출 비중은 합섬원료, 기초유분[3)], 중간원료, 기타제품 순으로 나타남

- 중간원료와 기초유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각각 69.6%, 63.3%로 매우 높음
- 특히 중간원료는 2023~2024년 중 2년 연속 수출이 감소

| 표 4 | 석유화학 품목별 수출증감률 및 대중국 비중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품목비중	중국 의존도
기초유분		7.5	−15.2	−29.5	67.6	23.1	−7.7	17.0	18.3	63.3
중간원료		14.4	−17.8	−38.3	54.2	0.9	−17.3	−5.8	11.4	69.6
다운스트림	합성수지	12.3	−11.8	−5.2	51.8	−3.7	−18.3	−1.4	4.3	6.7
	합섬원료	12.7	−7.1	−39.7	31.7	8.5	4.3	2.8	49.2	28.5
	합성고무	3.7	−13.2	−7.2	62.0	−23.2	−15.0	19.0	6.6	19.3
	기타제품	15.6	−25.9	−7.9	60.9	−8.0	−21.1	4.8	10.2	17.5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시스템」

2)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 간담회, LG화학 제공 자료
3)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톨루엔 등

화학산업 전문지 C&EN이 선정한 2024년 세계 화학기업 50위 내에 우리나라 기업은 4개 기업[4]이 포함되었고, 50위권 내 기업의 매출액을 합하면 세계 6위 수준

- 최근 생산능력이 급격히 상승한 중국이 매출액 기준 1위(8개사), 전통적인 화학 강국인 미국이 2위(10개사), 독일(4개사), 일본(7개사), 영국(3개사), 한국 순

| 표 5 | 글로벌 상위 50대(2023년 기준) 석유화학기업 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단위: 개, 억 달러)

	국가	기업 수	매출액	영업이익
1	중국	8	2,032	46
2	미국	10	1,969	190
3	독일	4	1,185	-46
4	일본	7	1,040	-29
5	영국	3	776	87
6	한국	4	749	23

주: 미국화학학회(ACS) 발행 전문지인 C&EN이 매출, 영업이익, 증감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계 화학기업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과 영향력을 파악

자료: Chemical and Engineering News, 「C&EN's Global Top 50 chemical firms for 2025」, 2025.7.22.

■ 2025년 상반기 중 주요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핵심 시설 가동률이 하락해, NCC 가동률이 60~70% 수준을 기록

석유화학산업은 초기 설비투자 비용이 매우 큰 장치산업으로, 중단 후 재가동하려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소 수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

- 석유화학기업의 손익은 가동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가동률이 70~80% 수준이면 저수익 구간으로 생산량 조정 단계, 60%대 수준이면 손익분기점을 하회

여수산업단지 내 석유화학업종의 가동률은 2021년 5월 94.2%에서 2024년 3분기 90.0%, 2024년 4분기 87.0%, 2025년 1분기 81.2%로 지속적으로 하락

- 석유화학산업 호황기(2017~2018년) 수준으로 가동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석유화학 생산능력이 최소 18% 감축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5]

4)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SK이노베이션

5) 한국신용평가, 「구조조정 문턱에 선 석유화학산업, 공급과잉 시대의 생존전략은?」, 2025.9.17.

3 석유화학산업 위기 원인

■ **(과거)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원료인 원유 가격 변동과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경기 순환적 위기를 경험**

(1980년대 초) 제2차 오일쇼크로 인한 유가 급등, 내수 경기 침체, 그리고 아시아 역내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위기

(1990년대 초) 걸프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에 석유화학 시장의 불황이 더해져 판매 가격이 폭락. 또한 3저 호황[6]과 1988년 7월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완전 자율화 조치로 1990년부터 국내 기업들의 경쟁적 신규 투자가 이어져 단기간 내 공급 과잉[7]이 초래되며 위기 가중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 당시 IMF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 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등이 구조조정 및 매각

(2012~2014년) 원유 공급량 증가, 수요 감소, 중국 및 인도의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 기업들이 3년간 연속 대규모 적자 기록

■ **(최근)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글로벌 수요 부진, 공급 과잉에 우리 산업의 원가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위기로 과거 위기 상황과 차이**

1) 중국의 자급률 증가로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최대 시장 소멸

우리 석유화학 수출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범용제품의 자급률이 100%에 근접

- 2024년 기준 중국의 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PP)의 자급률이 각각 95.2%, 96.9% 수준으로 확대

중국이 우리 화학제품을 자국 제품으로 대체하면서 수입 수요가 급감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주요 수출로가 막혀,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짐

-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7.8%에서 2023년 37.3%로 10.5%p 하락
- 국내 주요 석유화학사의 영업이익률은 2018~2021년 기간 7~12% 수준에서 2022~2024년 기간에는 -2~-3% 수준으로 하락[8]

6) 3저(저금리·저유가·저달러)로 인해 우리 경제는 1986~1988년 기간 중 연평균 12.1% 성장, 통계작성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처음으로 국제수지 흑자 기록
7) 석유화학산업의 국내 자급률이 1989년 77.8%에서 1993년에는 124%로 증가(자료: 대한유화 50년사)
8)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 간담회, LG화학 제공 자료

2) 중동, 미국 등 산유국의 생산 확대로 글로벌 공급 과잉

저가 원료 기반 경쟁 심화: 중국의 초과생산에 더해, 중동 에너지 기업들의 COTC(Crude Oil To Chemicals) 설비 및 미국의 셰일가스(에탄) 설비 등에 대한 대규모 증설에 따른 가격 경쟁 치열

- 2023년 기준 중국의 자국 내 에틸렌 생산량이 연간 5,174만t, 2025부터 2027년까지 다시 1,500만t 규모 설비가 추가될 예정
- 중국에 더해 중동 국가들의 석유화학 생산설비 증설과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의 석유화학 제품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며 글로벌 경쟁 심화

3) 우리 기업의 주력인 NCC 공정이 중동 및 중국의 COTC 기술에 비해 원가 경쟁력 열위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NCC 공정이 대부분인데, 이는 ECC나 COTC 공정보다 원가 경쟁력이 낮아 세계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열위

- 중국산 제품의 가격은 국산보다 15~20% 싸고, 중동산은 한국산의 30% 수준
- 중국의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 및 이란산 원유 우회 수입도 원인으로 지목

4) 우리 석유화학 기업들이 과거 석유화학산업의 경기순환적 패턴을 경험으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이 지연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고부가가치 특수 제품(스페셜티)보다는 시장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범용 제품(플라스틱 등)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어, 구조적인 불황에 취약

여기에 더해 중국 역시 기술력을 빠르게 추격하며 고부가가치 영역까지 진출하고 있어, 우리의 경쟁 우위가 점차 사라짐

4 정부의 대응

■ **정부는 현재의 석유화학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개편과 미래 산업 전환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제시**

정부는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3대 방향 및 정부지원 3대 원칙 등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발표

구조개편 3대 방향	정부지원 3대 원칙
①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② 재무 건전성 확보 ③ 지역경제 · 고용 영향 최소화	① 3개 석유화학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②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마련 ③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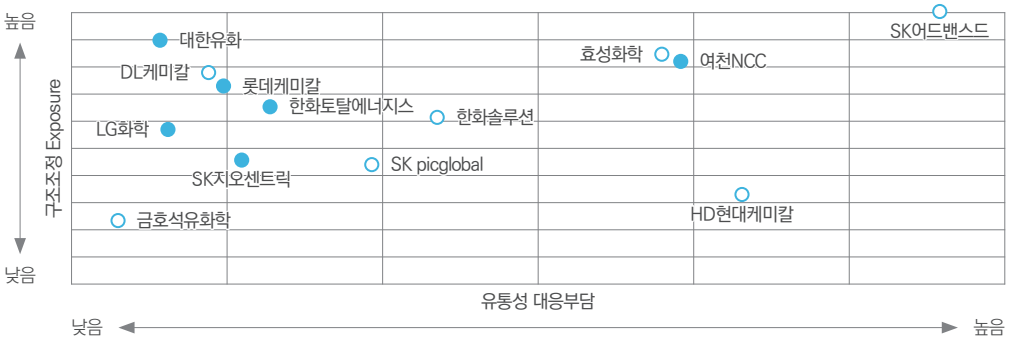
석유화학업계도 ① 270~370만톤[9] 규모의 NCC 감축, ② 고부가 ·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③ 지역경제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통해 생산능력 감축과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지원하는 자율 협약을 맺고 재도약을 모색

■ **신용평가사들은 석유화학 기업의 구조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진단하면서, 정부도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조만간 구조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10]**

다만, 기업 간 이해관계가 달라 실제 구조 개편 효과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

- NCC 설비감축 규모에 관해 어느 업체가 얼마만큼의 물량을 담당할지 불확실
- 최근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GS칼텍스와 LG화학 등 산업단지 내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확실성도 여전히 큰 상황

| 그림 5 | 업체별 구조조정 Exposure 및 유동성 대응부담 분포



주: ●=NCC기업, ○=NCC설비가 없는 일반 석유화학기업
자료: 한국신용평가, 「구조조정 문턱에 선 석유화학산업, 공급과잉 시대의 생존전략은?」, 2025.9.17.

9) 2024년 기준 에틸렌 생산능력 1,295만톤/년의 약 30% 수준
10) 한국신용평가, 「구조조정 문턱에 선 석유화학산업, 공급과잉 시대의 생존전략은?」, 2025.9.17.

■ **과거에도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으나, 민간의 자율에 많이 의존한 방식으로 실행력이 부족했다는 평가**

중국의 추격과 환경 규제라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으나, 정부의 지원 원칙이 '선 자구 노력, 후 지원'이었기 때문에 기업 간 이해관계 조정이 난관

- 과거에도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위기를 인식했지만, 실제 설비감축 및 사업 재편은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져 매우 더디게 진행
- 2016년 경쟁력 강화방안 이후에도 기업들은 경기의 순환을 기대하며 자구책 실행을 미뤘고, 결국 2022년 이후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

위기가 반복될 때마다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실행력 부족으로 적시에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하여 골든 타임 상실

- 이는 앞서 일본이나 유럽이 범용제품 중심의 설비를 감축한 것과 대조

고부가가치 스페셜티로의 전환을 목표로 했으나, 국내 산업은 범용제품 중심의 나프타 분해 설비(NCC)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어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부족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핵심기술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관련 R&D 계획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평가

- 특수화학 소재의 국산화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 사업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 등 산업의 질적 전환 가속화가 필요하나 구체적 대안 미제시
- 탄소중립, 친환경 원료 등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은 막대한 투자에 따른 위험성이 큰데,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지원책이 산업계에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

| 표 6 | 시기별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차이점

	2016년	2024년 및 2025년
주요배경 및 쟁점	범용 NCC 설비의 경쟁력 유지 및 경쟁 열위 품목 사업 재편에 주로 초점	중국발 공급 과잉 심화와 더불어 환경 규제 강화 및 탄소중립이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중점
핵심전략	현행 NCC 설비의 운영 효율화,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 O&M 서비스 사업화 등	청정 연·원료로의 대체(바이오매스, 메탄 기반 수소 생산 등), 에너지 효율 향상(전기화, 히트펌프), 설비 합리화 및 M&A 활성화
원료 다변화	에탄 도입 추진 등 원료 확보 노력 시작 단계	청정 연·원료로의 대체(바이오매스, 메탄 기반 수소 생산 등), 에너지 효율 향상(전기화, 히트펌프), 설비 합리화 및 M&A 활성화
추진방식	설비감축 및 사업 재편을 위한 제도적 지원 (일본 사례 분석 등) 중심	기업 간 자발적 사업 재편 자율 협약, 대산 단지 내 설비 통합 운영 검토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의 실행 방안 모색

자료: 정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16.9월, 2024.12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2025.8.20.)」

■ **정부와 기업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은 고부가가치 제품 및 친환경 사업으로의 핵심사업 구조의 고도화임**

스페셜티 화학소재 개발 및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전기전자 등 첨단 산업의 고성능 화학소재 및 초경량 소재 등 고부가가치 틈새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가 필수적
- 노후되거나 비효율적인 범용제품 설비의 감축, 매각 또는 통합(M&A)과 비주력 사업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자원을 고부가가치 사업에 투자할 필요

고부가가치 시장의 신규 진입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 인수(M&A)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술 확보 및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

친환경 제품 개발, 탈탄소 신기술 개발, 청정 원료 전환을 통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 플라스틱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고기능성 재활용 소재 등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집중
- 탄소 다배출 업종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친환경 연료/원료 대체 신공정 기술 등 탄소 감축 핵심기술 R&D 투자
- 바이오 나프타, e-메탄올 등 청정 원료 기반의 생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자발적 사업 재편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세제 혜택(조세특례), 정책 금융 지원(자금), 공정거래 관련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

석유화학산업이 밀집된 지역(여수, 울산, 대산 등)에 대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를 통해 협력업체 및 지역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

- 맞춤형 지원: 지역 내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준 완화 및 지역 투자 보조금 상향 적용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안정화를 도모

5 국내외 사례

가. 국내 조선업 사례

■ **2010년대 한국 조선업은 초반에는 경기 불황, 중국의 부상과 시장 점유율 하락, 구조조정과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해양플랜트와 친환경 선박 시장으로 변화를 모색**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운 중국 조선소들의 물량 공세에 선박 생산량 1위 자리 내주는 등 어려운 상황

- 2013년 기준, 전 세계 선박 발주량 4,866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 중 국내 조선업의 수주 물량은 1,607만CGT로 점유율 33%를 차지하며, 40.9%를 차지한 중국(1,991만CGT)에 이어 2위, 일본은 14.8%로 3위[11]를 기록
- 수주 금액으로는 우리나라가 411억달러로 1위, 중국이 327억 달러로 2위를 기록, 이는 국내 조선사들이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주로 수주한 것에 기인

2015~2016년 국내 조선업은 사상 최악의 위기에 처함

- 중국과의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자,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부유식 생산, 저장, 하역 선박), 드릴십 등 신시장 개척을 시도
- 그러나 2014년 초 미국 원유재고량과 셰일가스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유가가 100달러에서 30달러까지 급락하는 초저유가 상황으로 인해, 해외 업스트림 기업들이 발주를 취소 또는 연기를 하면서 인도 지연으로 손실[12]
- 2016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 유가 하락, 선박 공급 과잉 등으로 3년 연속 수주가 감소하는 수주 절벽 상황, 조선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되었고, 거제와 울산 등 조선업 밀집 지역의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

11) Clarkson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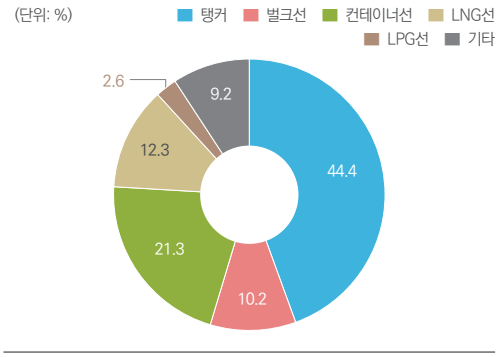
12) 1985년 오일쇼크 시기, 발주 당시에는 경기를 낙관했던 선주 및 해양 발주처들이 2~3년 후 세계 경기 침체와 초고유가로 유조선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자 선박 인수를 미루다가 거부

| 표 7 | 2013~2017년 국내 선종별 수주량

(단위: 천CGT)

	2013	2014	2015	2016	2017
탱커	3,498	2,838	3,536	1,049	3,331
벌크선	11,115	845	0	16	764
컨테이너선	4,018	1,449	3,061	255	1,596
LNG선	2,265	3,228	1,128	438	920
LPG선	1,048	1,532	838	30	192
드릴십	523	83	0	0	0
기타	1,205	755	1,027	221	691
총계	13,673	10,728	9,590	2,010	7,495

| 그림 6 | 2017년 선종별 수주 비교



주: 자동차전용선(Car Carrier), 석유제품선(Oil Products Carrier), 화학제품선((Chemical Tanker)는 제외
자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정부는 조선업 위기 타개를 위해 대형 조선 3사[13]의 자구계획 이행 촉구, 가동 중단, 인력 감축, 개별기업 구조조정 등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을 통한 금융 지원

정부는 고강도 구조조정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원샷법 시행, 공공선박 발주, 적극적 채무조정 등 정책적 지원

(생산규모 축소) 모든 주요 조선사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일부 조선소는 가동 중단 및 순환 휴직 등을 실시하며 감량 경영

(인력 감축) 대형 조선소와 중소 조선사 간의 통합을 통해 최대 1만 명 이상의 인력 감축, 협력업체와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감축 규모는 더욱 확대

■ 조선업 구조조정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사업이 재편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와 숙련공 대거 이탈을 초래해 현재의 조선업 인력 부족[14]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혼재

(긍정적 평가) 대규모 적자 상황에서 조선업계의 생존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수익성 중심의 체질 개선,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 회복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

- 저가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수익성 높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LNG선 등)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데 기여
- 친환경 선박, 스마트 선박 기술 등 미래 시장을 주도할 기술 개발 및 투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면서 중국 등 후발주자와의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조선업 경기 호황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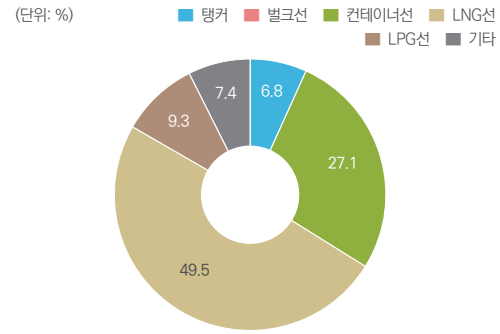
13)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14) 한국고용정보원(2025.8.1.)의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조선업의 일자리 미충원율은 17.1%로 전년동기대비 1.8%p 증가하였으며, 전산업 평균(7.7%)과 비교하면 9.4%p 높은 수준

| 표 8 | 2018~2023년 국내 선종별 수주량

(단위: 천CGT)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탱커	2,046	1,985	1,673	2,143	317	606
벌크선	176	60	0	60	0	0
컨테이너선	3,123	2,113	1,033	6,717	4,414	2,429
LNG선	4,831	4,463	4,038	5,711	10,241	4,435
LPG선	312	556	328	1,501	388	831
드릴십	0	0	0	0	0	0
기타	453	233	485	531	162	663
합계	10,941	9,410	7,557	16,663	15,522	8,964

| 그림 7 | 2023년 선종별 수주 비교



주: 자동차전용선(Car Carrier), 석유제품선(Oil Products Carrier), 화학제품선((Chemical Tanker)는 제외
자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정적 평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10만 명이 넘는 인력이 이탈하여 현재 조선업계가 겪는 심각한 내국인 숙련공 부족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대형 조선소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줄도산하며 산업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 영향

- 많은 중소 조선소와 관련 기자재 업체가 도산하면서 조선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일자리 감소와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가 장기간 침체
-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숙련공들이 대거 이탈하였고, 국내 조선해양공학 관련 인력양성 시스템도 약화되어,[15] 현재까지 내국인 숙련공 부족으로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 그러나 최근 조선업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은 다른 산업과의 임금 및 근로환경 격차로 인해 젊은 인력의 기피 현상과 과거 불황기에 이탈한 숙련공의 복귀 부족이 근본 원인. 특히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불안정성과 열악한 처우도 인력 이탈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16]

나. 일본 석유화학 사례

■ 일본 석유화학산업은 1980년부터 40여년 간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정부 주도의 설비 과잉 조치로 시작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2000년대 이후에는 기업 간 합병, 사업부 매각, 합작 투자, 고부가가치 사업 집중 등의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15) 한국해양플랜트협회가 2022년 조선해양공학 관련 학과 20개교의 졸업생 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5년 59%였던 취업자 비중이 2021년 38%로 하락하였고, 졸업생 수는 2015년 1,024명에서 2021년 930명으로 9.18% 감소하였는데, 전공분야 진출자 비중이 40%에서 22% 하락

16) 한국고용정보원(2025.8.1.)의 자료에 따르면 조선업의 인력 미충원의 주된 사유는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40.4%)',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21.3%)',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7.0%)' 등으로 조사됨

■ 시기별 일본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1차) 1970년대 후반 ~ 1980년대 초반

- 1970년대 석유 파동과 경쟁 심화로 인한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이 시작
- 정부 정책: 「특정 산업 구조개선 임시조치법(산구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나서서 설비를 감축하도록 유도
-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 대형 화학사에 노후·중복 NCC 폐쇄를 명령. 기업들은 범용 에틸렌, PE설비를 폐쇄하고, 대신 고부가 특수화학으로 체질 변경
- 이로 인해 가동률이 단기간에 80%대를 회복했지만, 중소업체가 대량 퇴출되며 정부 개입이 과도했다는 비판과 함께 생존을 위해 시장자율성을 훼손했다는 평가

(2차) 1990년대 중반 이후

-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산업 활력 재생 특별조치법(산업재생법)」)에 따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시작
- 정부 정책: 정부는 「산업재생법」을 통해 합병·분할 절차를 주총 → 이사회로 대폭 단축, 양도차익·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3년 유예 및 분할납부, 「공정거래법」 상 기업결합 심사를 패스트트랙으로 전환, 지주회사부채· 지분 규제를 5년간 면제하는 등의 지원
- 기업 전략: 경쟁력이 낮은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합작 투자(JV)로 전환, 점진적 감산 및 고부가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자발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
- 효율성이 낮은 범용제품 사업 부문이 정리되고, 특수화학·전자재료·헬스케어 등 고부가가치 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재무구조 개선

(3차) 2000년대 이후 (글로벌 콤비나트 시대)[17]

- 국내 경쟁 심화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구조조정이 가속화
- 정부 정책: 규제완화, 세제지원, 탄소감축 인센티브 등을 제공
- 기업 전략: 경쟁사 간 대형 합병 및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강화
- 일본 내에 산재하던 소·중형 NCC를 대형콤비나트 하나로 묶고, 해외에 생산거점구축(미쓰비시는 중국, 미쓰이는 태국), 스미토모는 사우디 아람코와 합작 투자로 페트로 라비(Petro Rabigh) 설립

17) 글로벌 콤비나트는 특정 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을 국제적인 규모로 통합한 기업 또는 사업 단지를 의미. 이는 단순한 기업 집단을 넘어, 원료 확보 및 수송 효율화를 통해 비용 절감과 경쟁력을 강화

| 표 9 | 일본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주요 경과

	시기 및 조치	내용	영향
1차	1970년대	전국 NCC·중소형 설비 무분별 증설	1970년대 말 내수 초과공급, 가동률 저하
	1980~1981년 오일쇼크	원유·나프타 가격 폭등	원가 급등, 가격 경쟁력 붕괴
	1980년대 초 구조조정	산구법 발동, 설비 통폐합·감축 명령	과잉 설비 폐쇄, NCC 대형화 추진
		시장자율성 훼손, 중소기업 대량 퇴출	'정부개입 + 시장 유연성' 병행 필요
2차	1990년대 초 장기 불황 돌입	내수침체, 중동 초저가 공세, 중국 저가 전략	석유화학 수요 급감, 가격 경쟁력 추가 약화
	1990년대 중·후반 2차 구조조정	정부, 산업재생법제정 → 시장자율M&A 유도	관+민 협업구조확립
		M&A · 전략적 제휴 활성화	규모의 경제달성, 비용절감
		포트폴리오 고도화	고부가가치화, 글로벌 경쟁력 회복
		장기적·단계별 설비 정리	재무 안정, 구조적 체질 개선
3차	2000년대 초 전환점	내수부진 지속, 글로벌 경쟁 격화	산업 존립 위협, 글로벌 대응 절실
	정부 역할 변화	규제완화·세제 인센티브 등 간접지원	기업 자율 구조조정 환경 조성
	기업 자구책	콤비나트 통합 본격화	규모의 경제·고정비 절감·품질 향상
		해외 생산기지 확대	저원가 원료 확보, 공급망 다변화
		고부가 포트폴리오 진출	글로벌 차별화·이익률 개선
	성과 · 의의	시장 혁신 주도, 정부는 울타리 역할	지속가능 경쟁력 확보, 모범적 구조조정

자료: 정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2016.9월, 2024.12월)」 ;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재편 자율협약식(2025.8.20.)」

■ 일본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은 범용제품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으나, 지속가능한 전략은 부재했다는 평가

정부가 「산업재생법」에 따른 노후 및 중복 설비 폐쇄를 통해 기업들이 중복 NCC 폐쇄와 핵심사업부 통합을 통해 고부가 소재로 이동할 시간 제공했다는 평가

- 에틸렌 생산능력을 2003년 연간 736만톤에서 2023년 532만톤으로 축소했으나, 최근 석유화학 산업 불황 장기화에 따라 NCC 업체 간 설비합리화를 통해 2028년까지 연간 240만톤 추가 감축이 진행 중

| 표 10 | 시기별 일본 석유화학 구조조정과 에틸렌 생산량 추이

	1차(1980~1983)	2차(1996~1999)	3차(2003~ 현재)
연평균 에틸렌 생산량	6.0Mt	7.2Mt	6.9Mt → 5.3Mt

자료: 삼일회계법인, "일본 석유화학 구조조정 사례와 시사점," 「Industry Focus」, 삼일PwC경영연구원, 2025.8.

'시장 자율 + 정책 지원' 모델을 통해 고부가가치 특수 화학제품(specialty)으로 전환에 성공, 구조조정 후 NCC의 가동률이 한때 80%까지 상승하는 등 생산 효율성도 달성

- 기능성 고분자 폴리머, 헬스케어, 친환경·바이오 고부가가치 수지 등 특수 화학제품(specialty)에 20년간 투자를 확대
- 우리나라 석유화학 4개사[18] 평균 매출액 대비 R&D 비중은 약 0.9% 수준 반면, 일본 6개사[19] 평균은 3.9%[20]

이러한 구조조정은 과거 위기 극복에는 기여, 그러나 최근 다시 새로운 위기에 직면

- 중국발 공급 과잉, 중동 석유화학산업의 부상 등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수익성도 하락
- 기존의 성공 모델이 미래의 위기까지 모두 해결하지는 못하며, 새로운 위기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 부재로 최근에도 구조조정 추진 중

6 요약 및 시사점

■ 최근의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과거의 경기 순환적 불황과 달리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위기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과거 제2차 오일쇼크, 걸프전쟁, 2010년대 초반 등에서 원료인 원유 가격 변동과 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던 경험이 있음

2022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우리 석유화학산업의 위기는 글로벌 수요 부진에 중국의 자급률 확대, 공급 과잉, 그리고 우리 산업의 원가 경쟁력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위기

■ 과거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들은 민간의 자율에 많이 의존했다는 한계로 인해 실행력이 부족했다는 평가

과거에도 중국의 추격과 환경 규제라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했으나, 정부의 지원 원칙이 '선 자구 노력, 후 지원'이었기 때문에 기업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웠고, 실행력 부족으로 적시에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못함

고부가가치 스페셜티로의 전환 목표에도 불구, 여전히 국내 산업은 범용제품 중심의 나프타 분해 설비(NCC)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

고부가가치 및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핵심기술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관련 R&D 계획이나 기술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부족

---

18) LG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19) Sumitomo Chemical, Mitsubishi Chemical, Mitsui Chemical, Toray, Teijin, Shin-Etsu
20) 하이투자증권, "일본 석유화학 업체 탐방기," 「In-Depth Report」, 2024.3.14.

■ **우리 조선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사례와 일본의 '시장 자율+정책 지원' 모델을 통한 구조조정 사례를 통해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목표로 실행력이 있는 구조개편을 시행할 필요**

2010년대 중반 우리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와 숙련공 대거 이탈을 초래해 현재의 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복합적

시장과 정부가 역할을 바꿔가며 오랜 기간 구조조정을 시행한 일본 석유화학산업은 범용제품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specialty 제품 중심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평가, 그러나 지속가능한 전략이 부재해 최근 중국발 공급 과잉, 중동 석유화학산업의 부상 등 새로운 위협에 직면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은 실행력을 갖고 고부가가치 제품 및 친환경 사업으로의 핵심사업 구조의 고도화를 추진**

스페셜티 화학소재 개발 및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범용제품 설비의 감축, 매각 또는 통합 등을 통해 자원을 확보해 연구개발(R&D)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

탄소 다배출 업종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CCUS, 친환경 제품 개발, 탈탄소 신기술 개발, 청정 원료 전환을 통한 녹색전환에 집중이 요구되므로, 정부는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 재편 촉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외에도 구조개편 추진 상황에 따라 석유화학산업 밀집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해 협력업체 및 지역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

nabo Industry Trends & Issues

산업동향 & 이슈

2025년 10월호 통권 제78호

발행일	2025년 10월 27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디자인여백플러스 02-2672-1535

© 국회예산정책처, 2025

국민을 지키는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97-001585-06
ISSN	3058-9851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